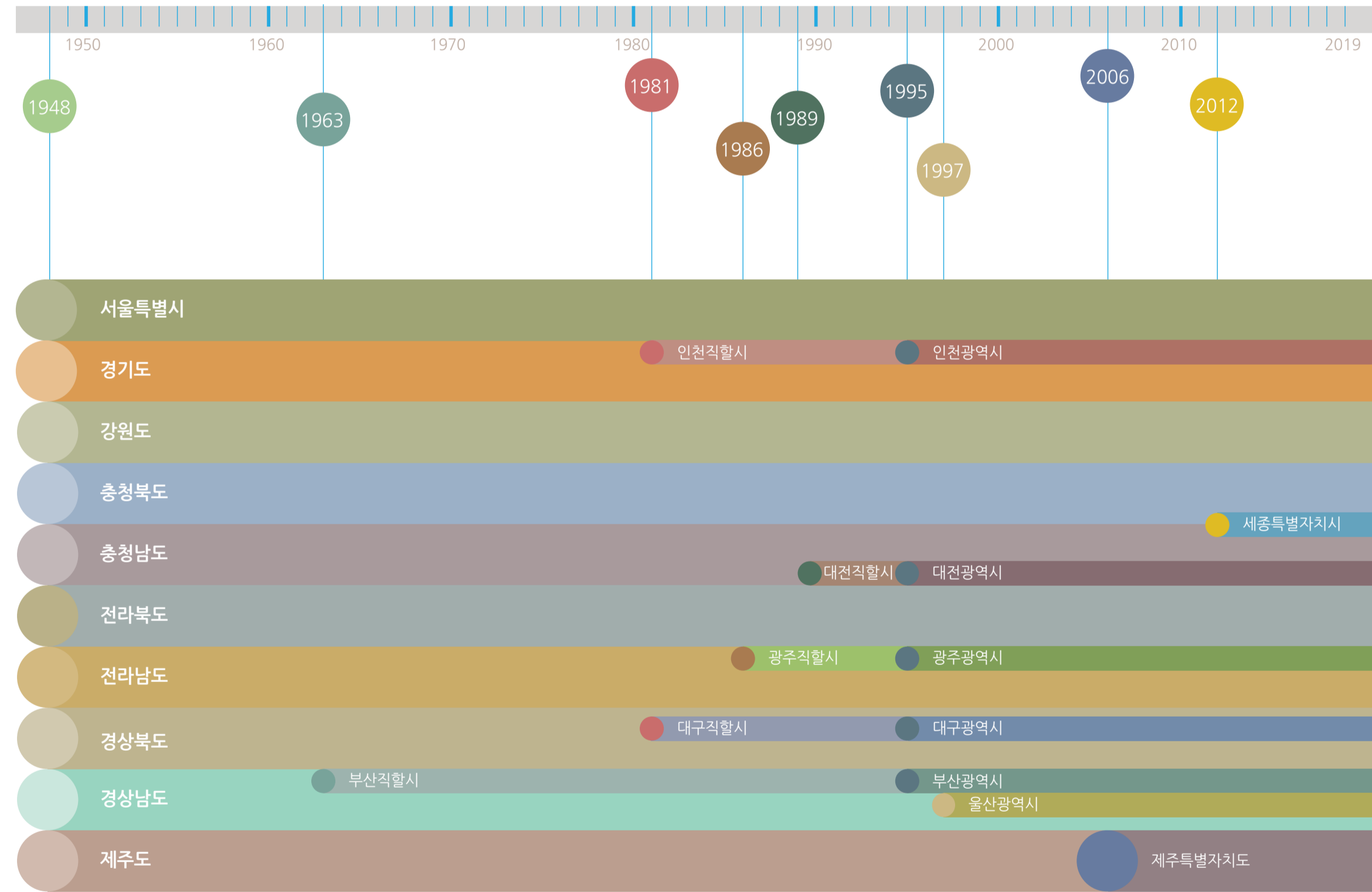


행정 구역

광역 행정 구역의 변화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을 위한 공간 단위면서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광역 행정 체계는 도를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 행정 구역 체계를 현대의 행정 구역 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945년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15개의 도, 23개의 부, 218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듬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 부가 시로 일괄 개칭되었다. 1962년 정부는 생활권과 행정 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폭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행정 구역 개편은 주로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외화 등으로 인한 도시 확장에

기인한다. 인구가 증가한 소도읍이 시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한 대도시는 도의 관할 아래에서 직할시로 승격됨으로써 직접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60년대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1960년대 말 1개의 특별시(서울특별시), 1개의 직할시(부산직할시), 9개의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0개의 시, 140개의 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들이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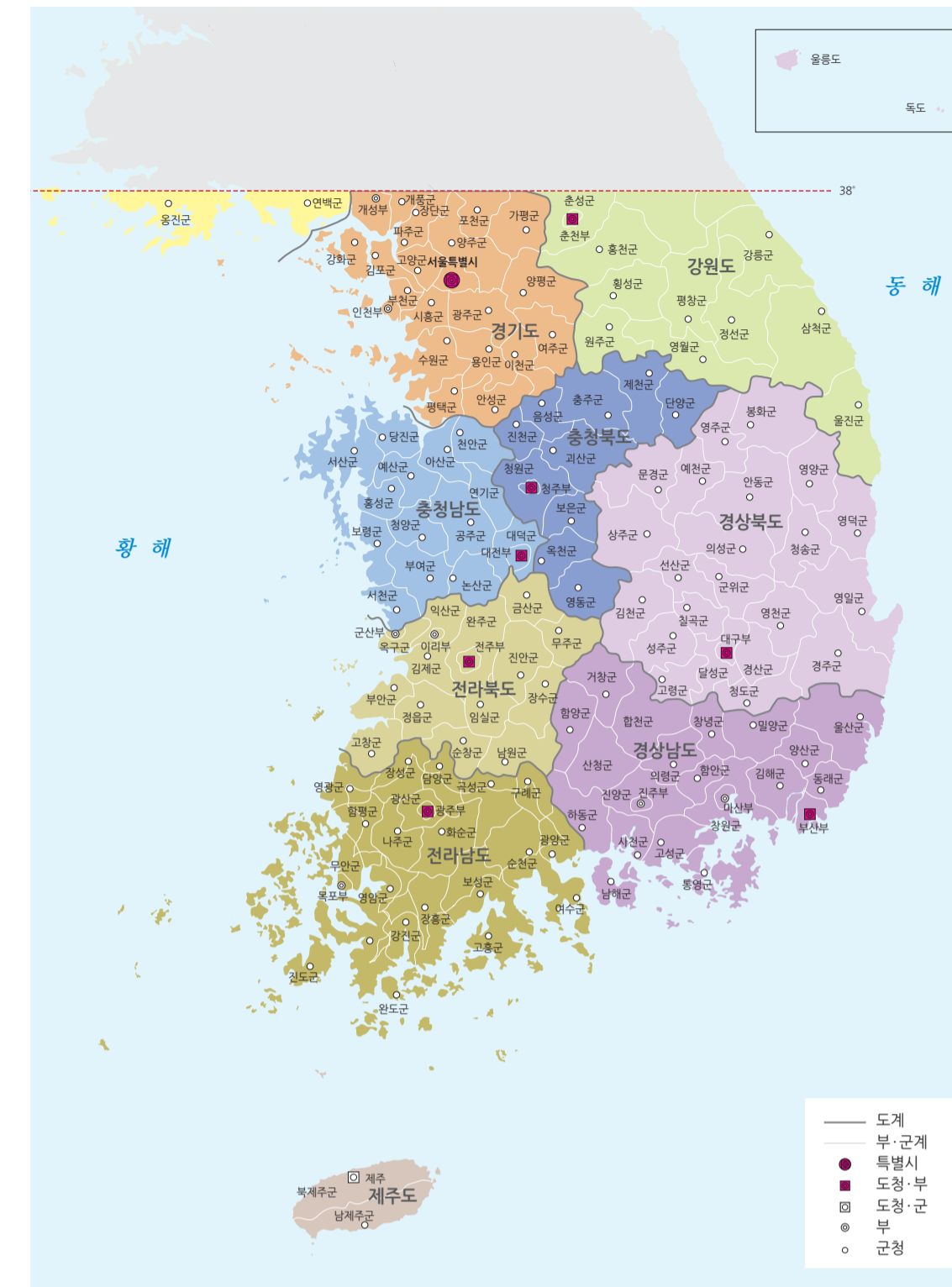
1995년에는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은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인 군 지역을 통합하여,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농촌 배후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95년부터는 중심 도시

인 시와 배후지인 군이 통합되었고,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당시 40개의 도농 통합시가 설치되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가 광역시로 출범하였으며,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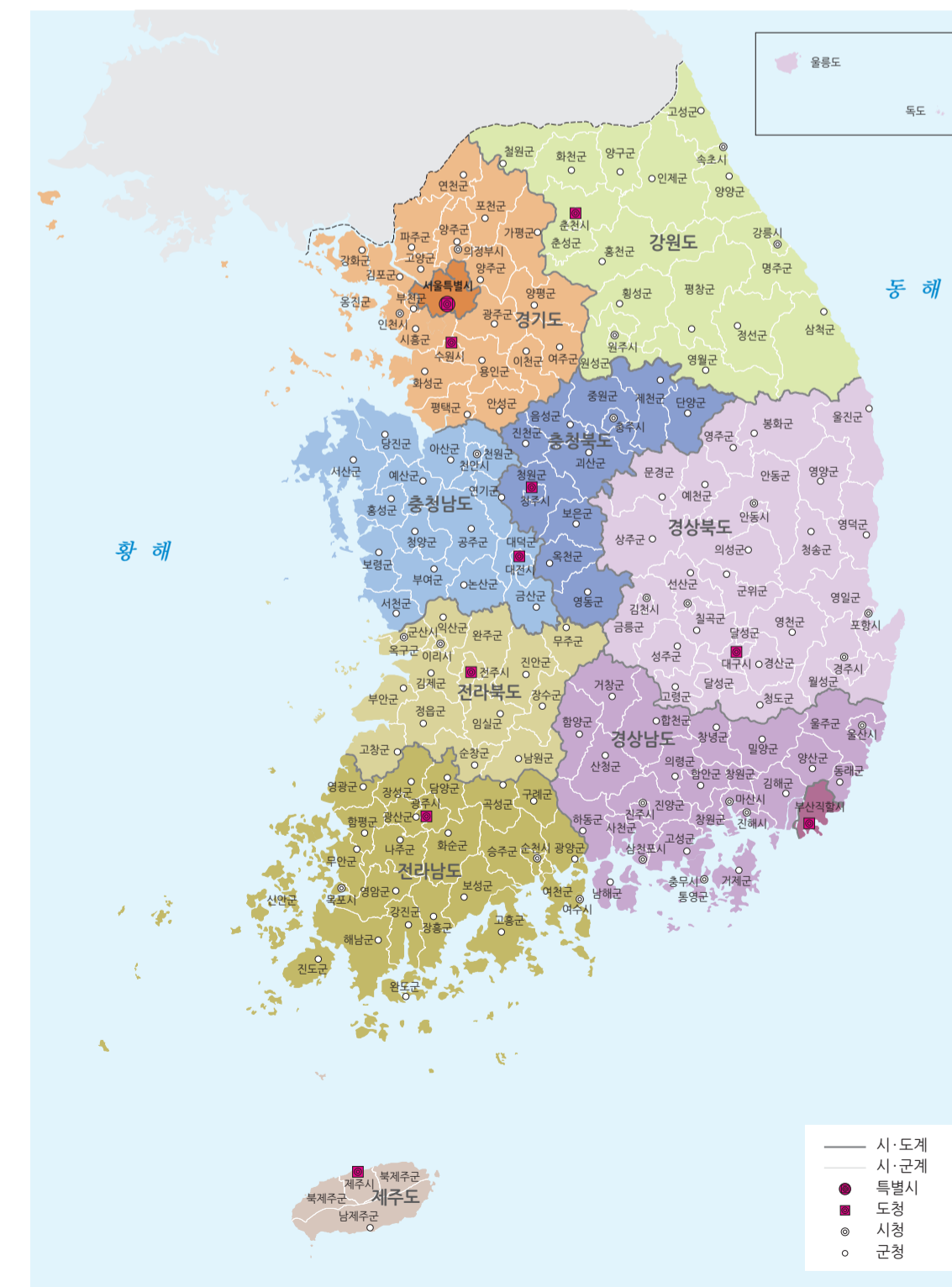
200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광역 단위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8개의 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까지 총 17개 광역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광복 이후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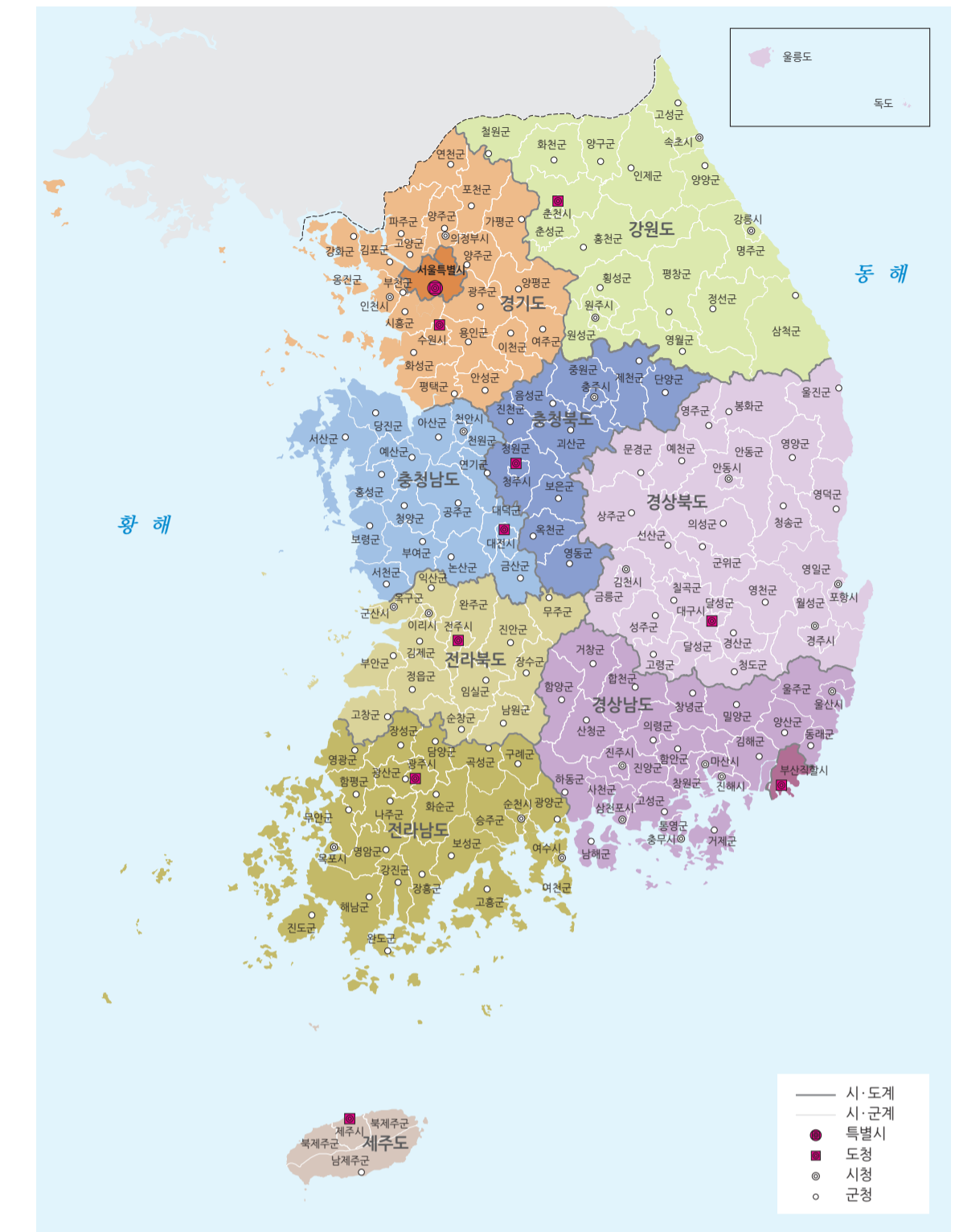
1946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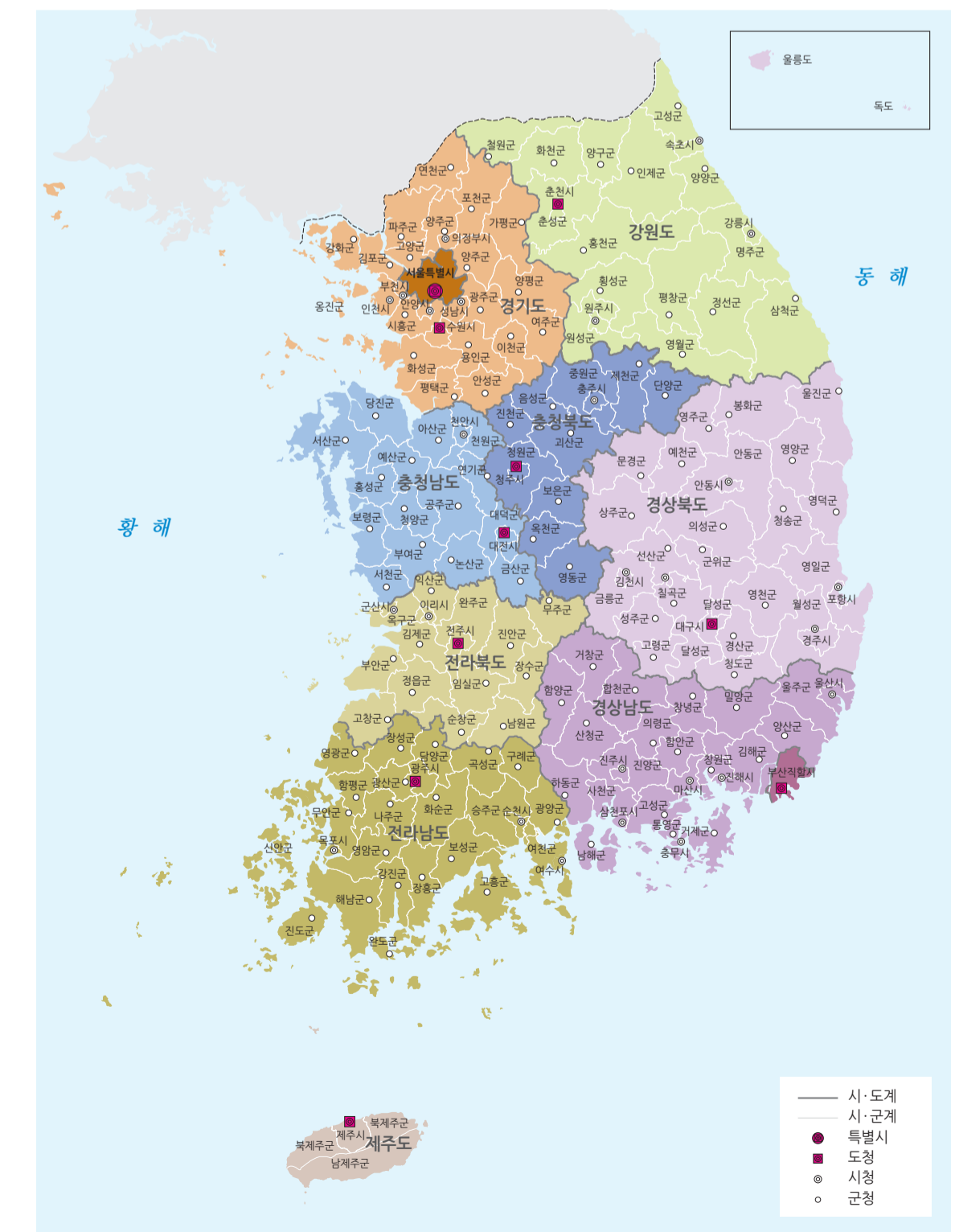
1970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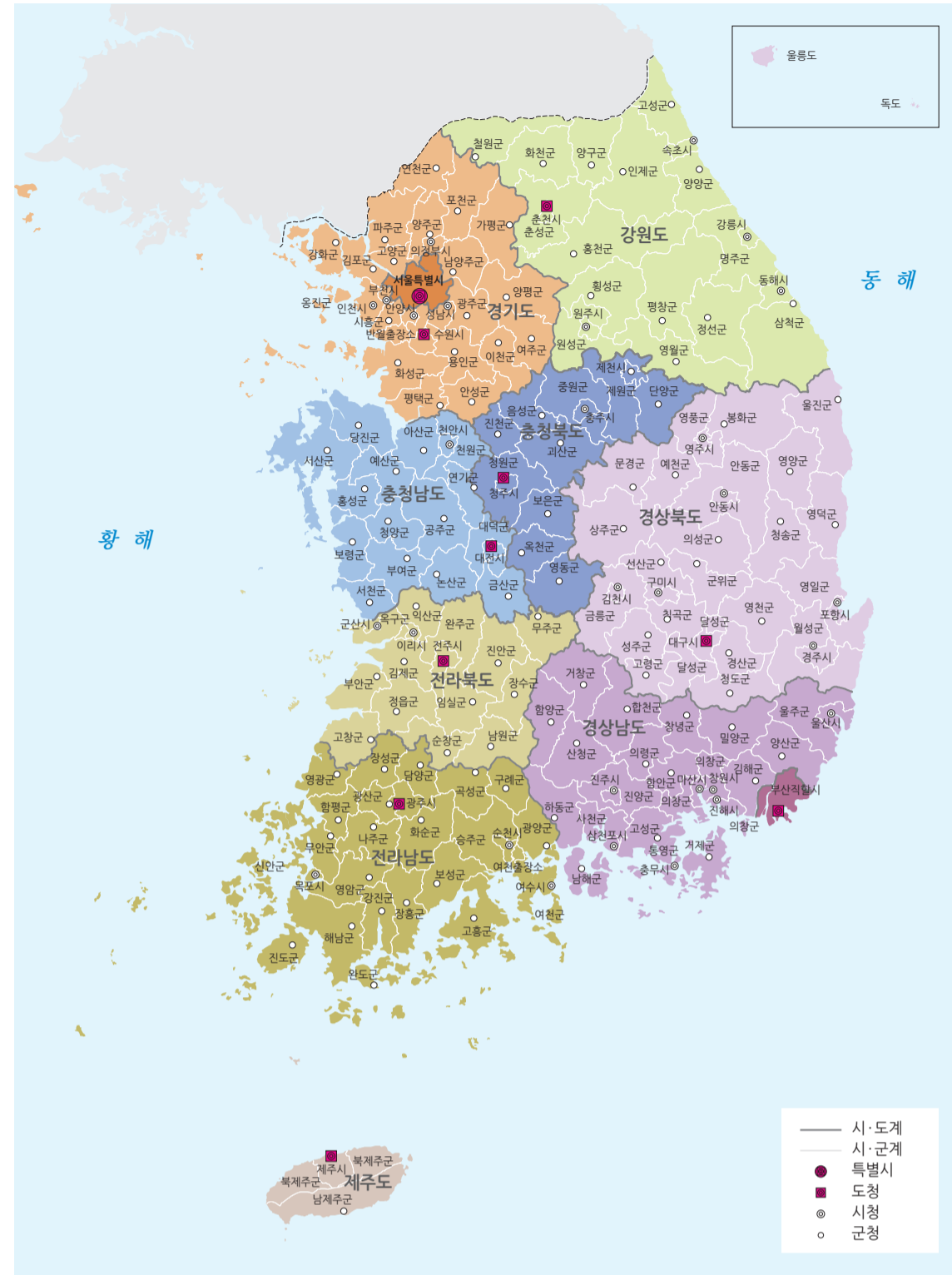
1965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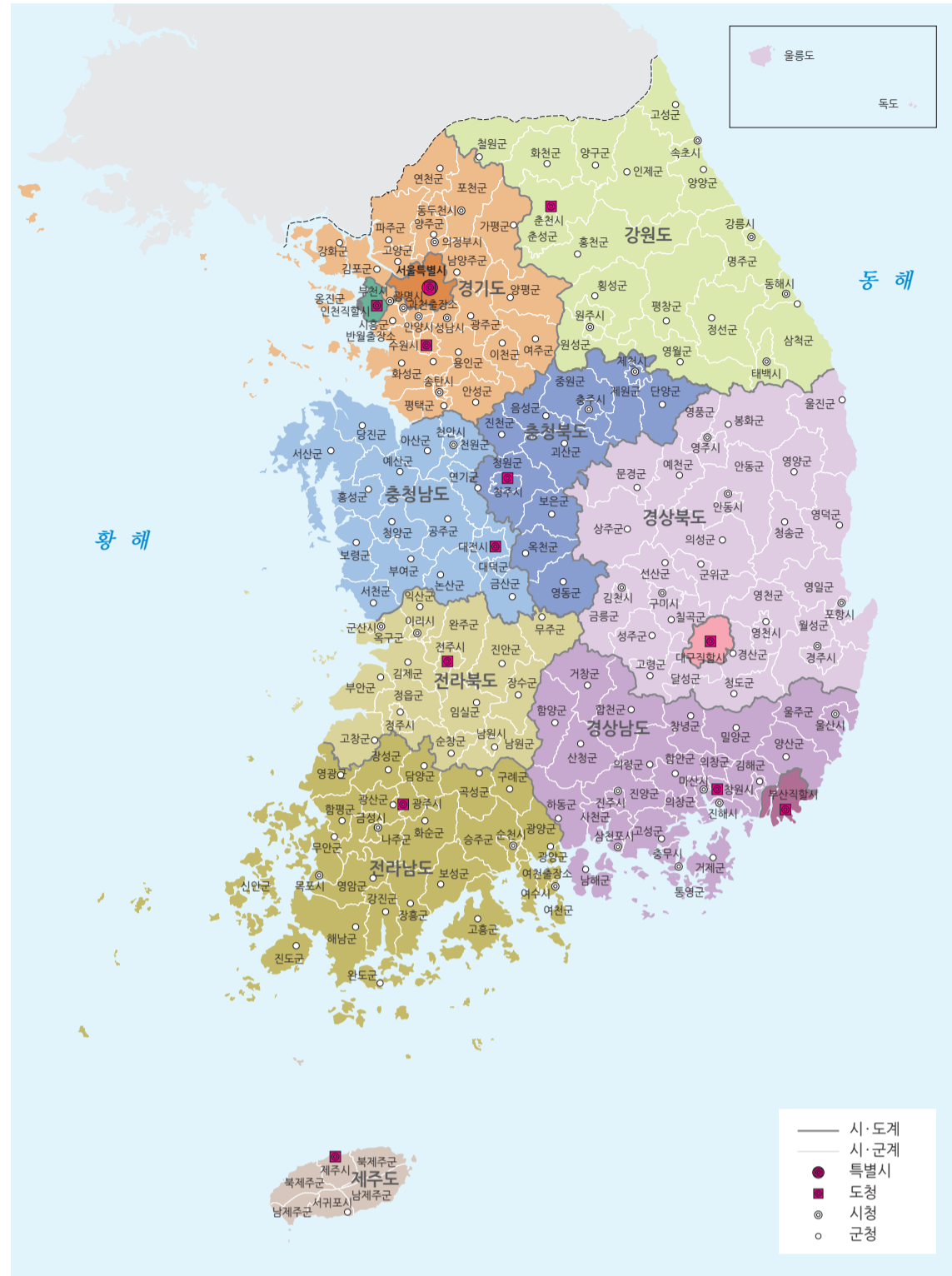
1975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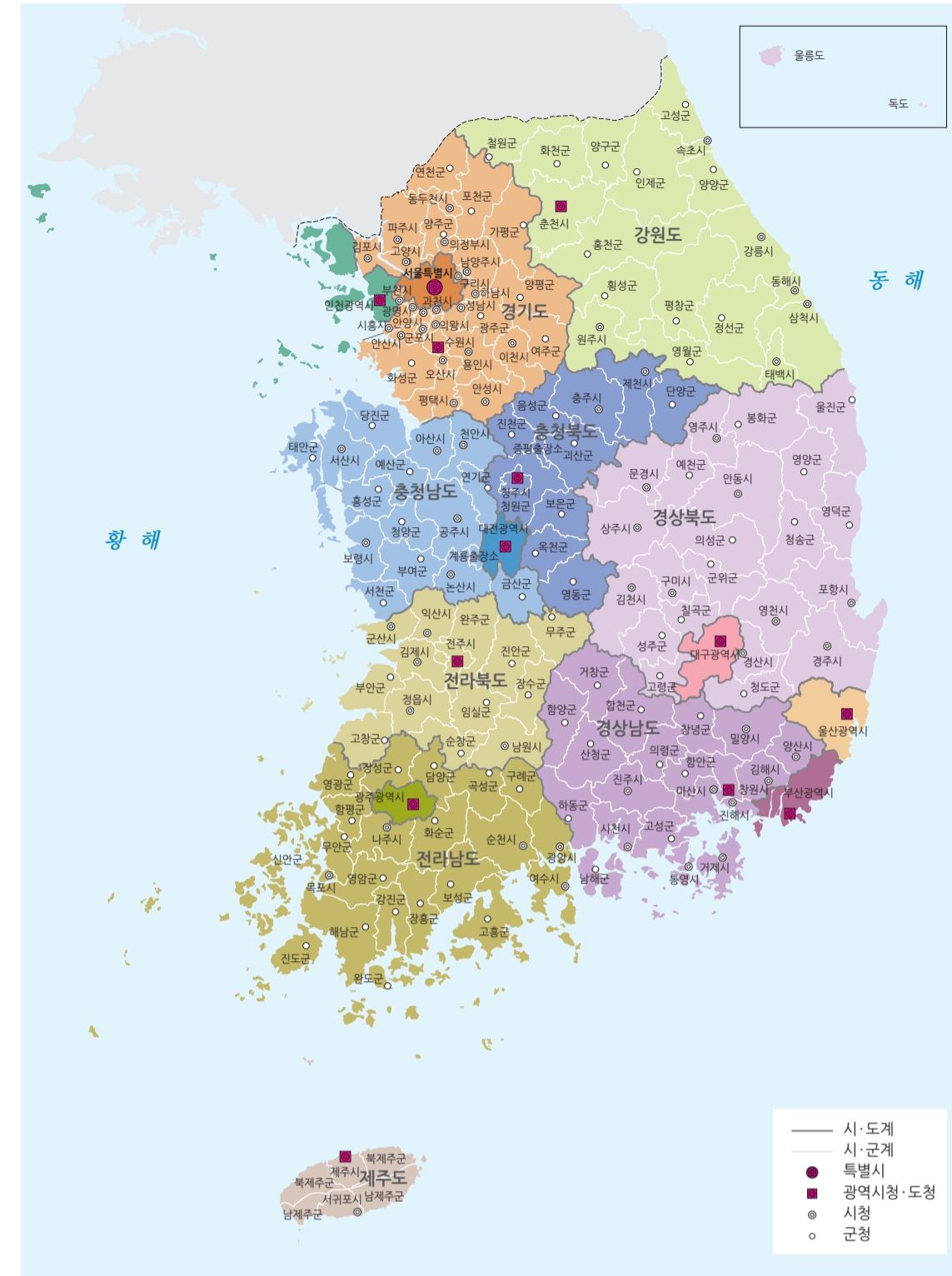
1980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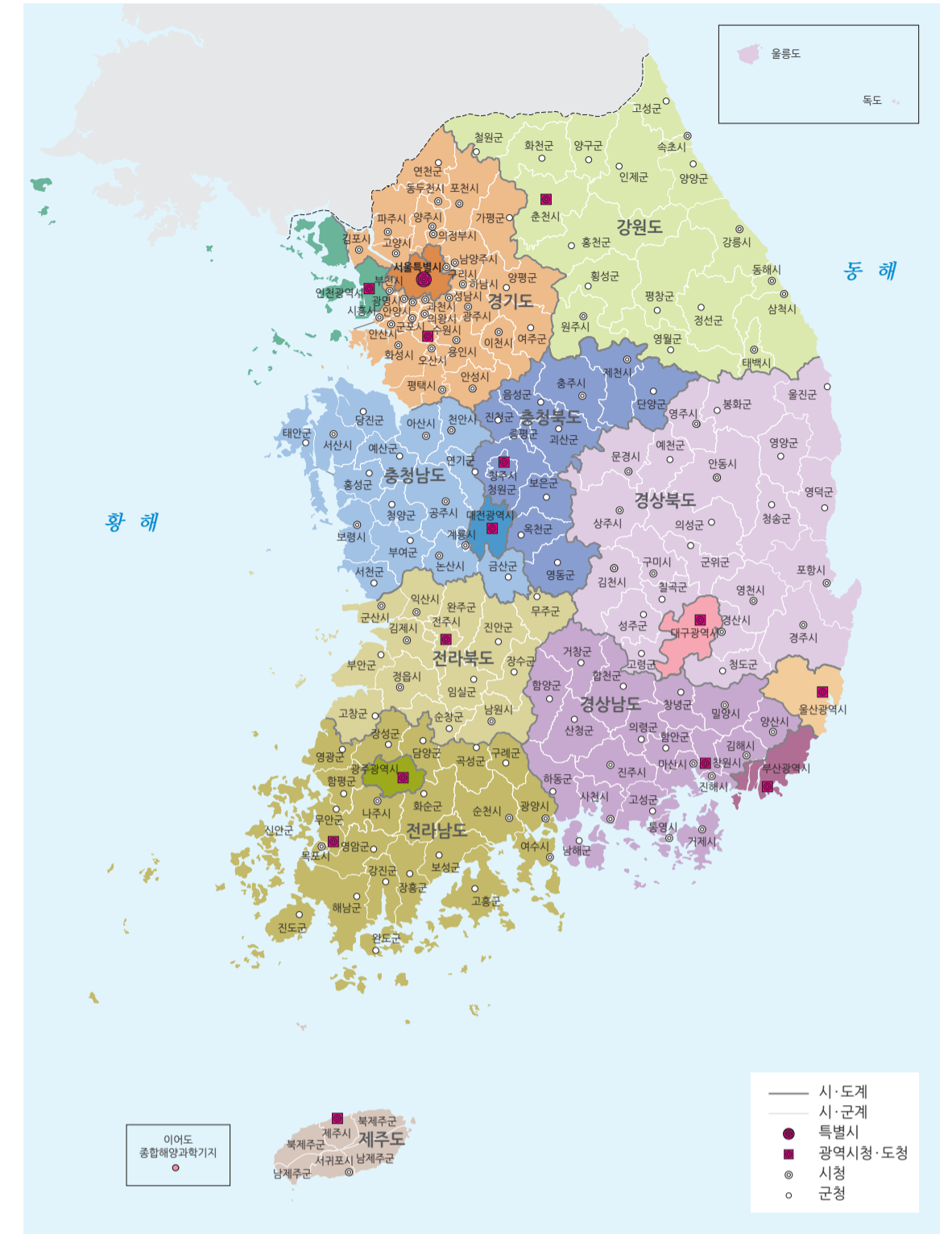
1985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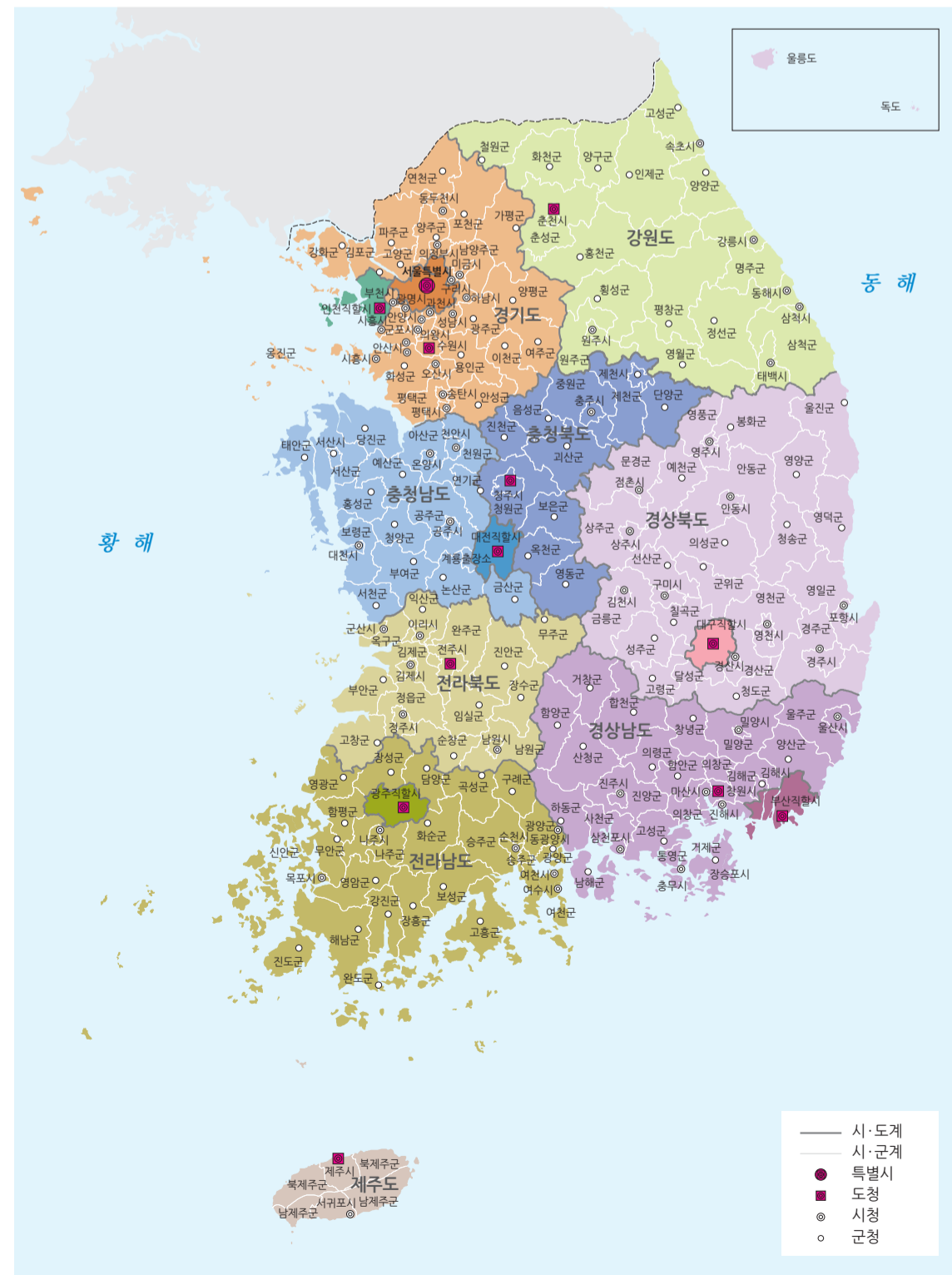
2000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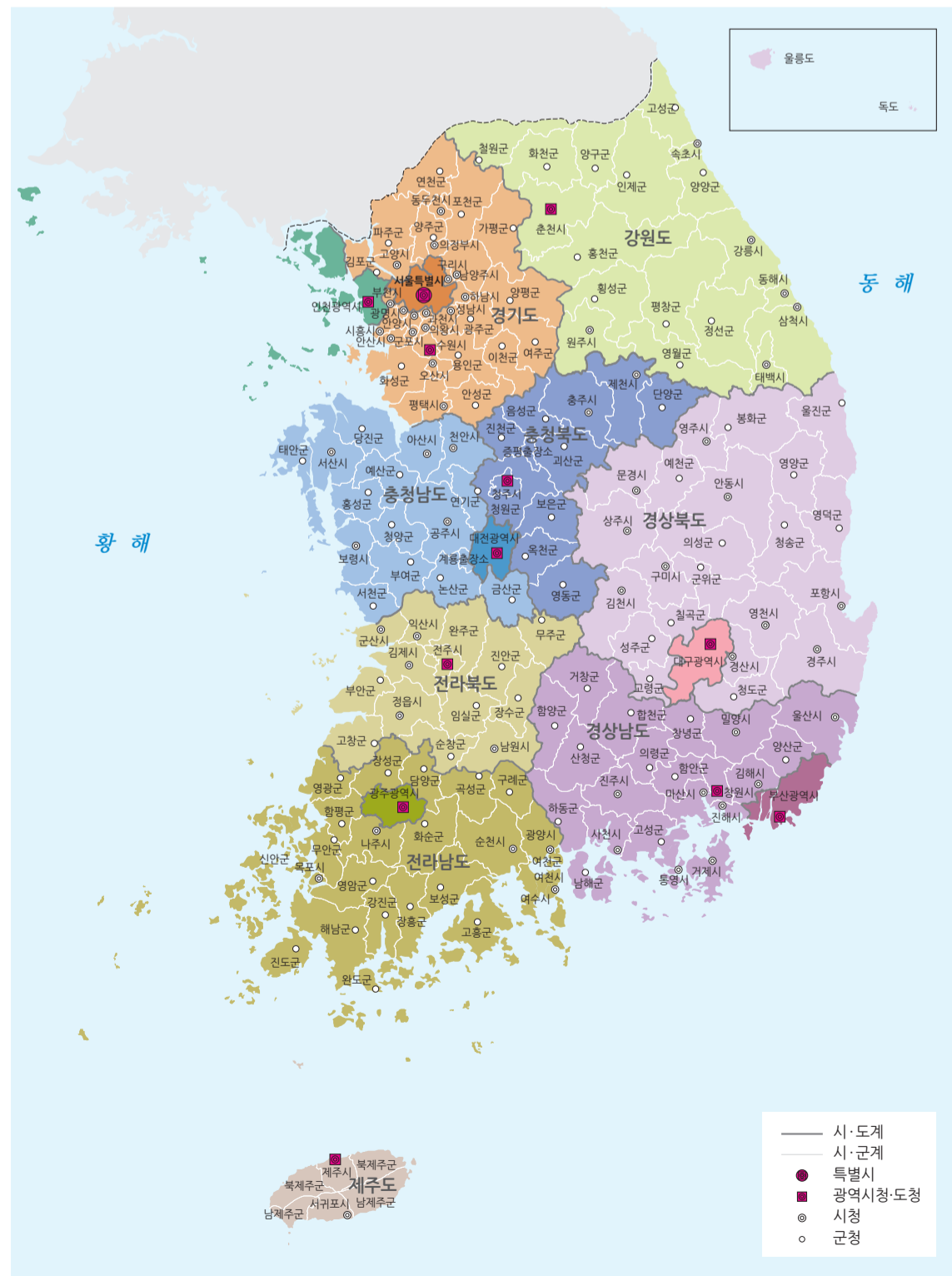
2005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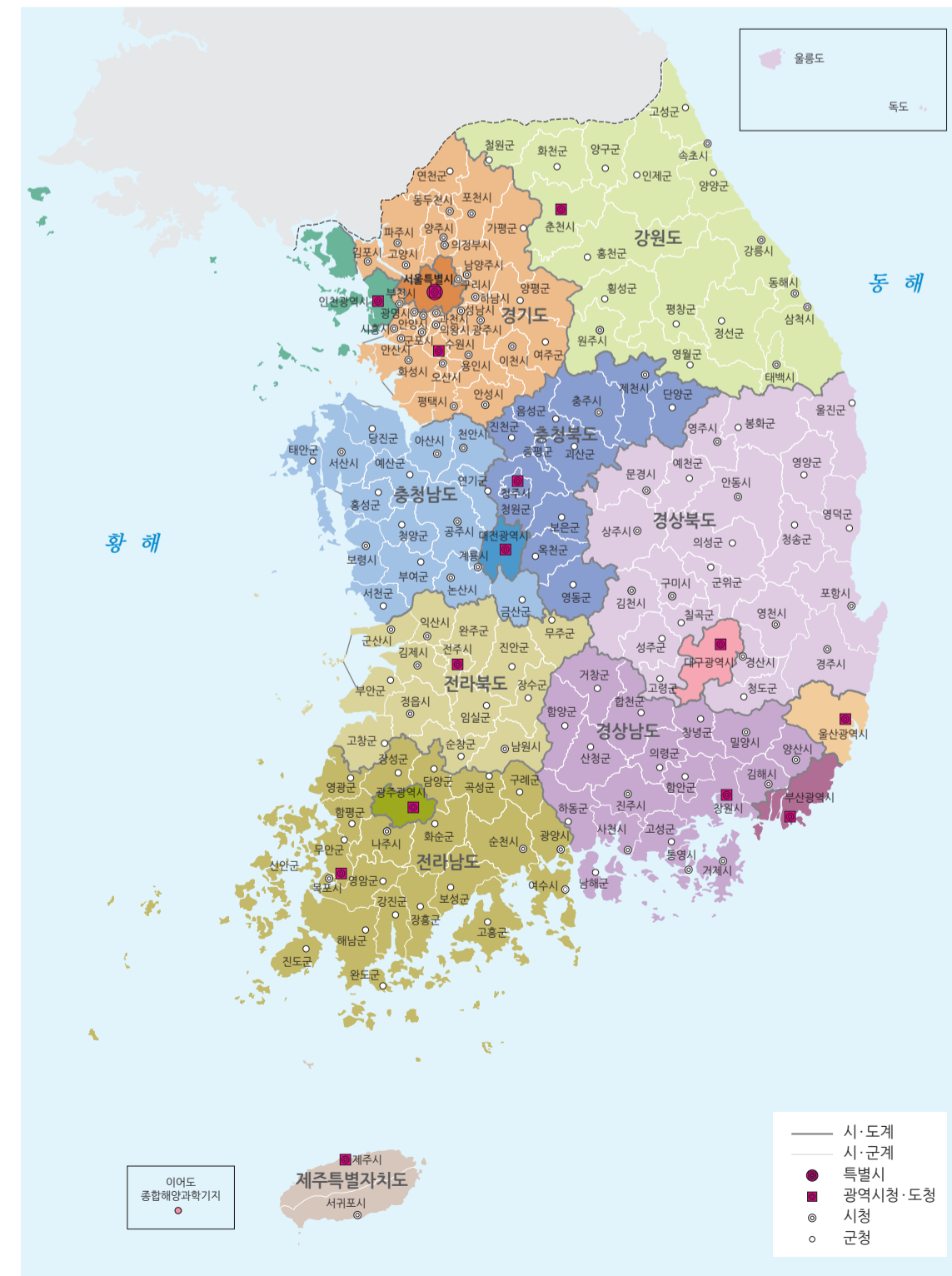
1990년의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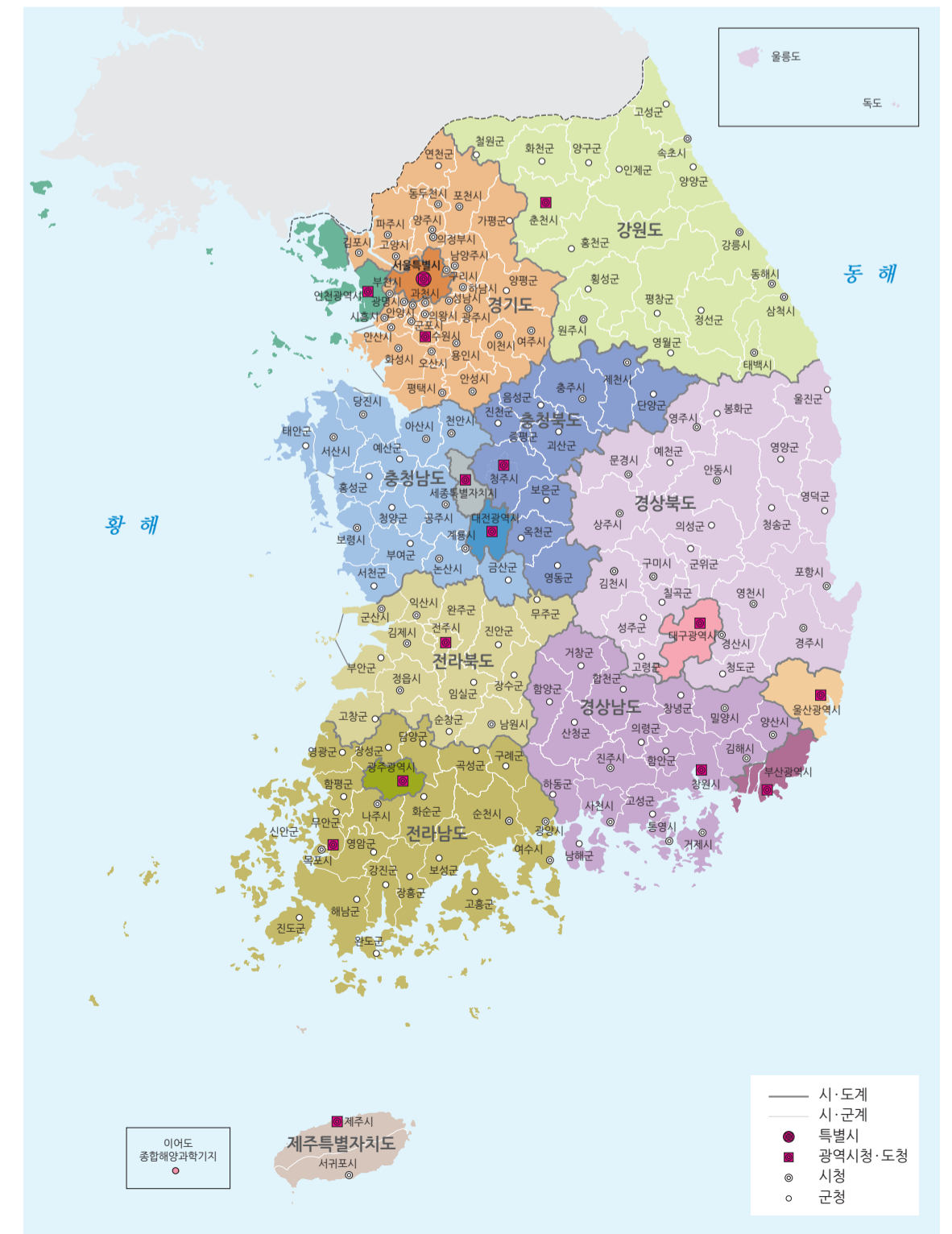
1995년의 행정 구역



2010년의 행정 구역



2019년의 행정 구역



대도시의 확장

서울은 근대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공간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조선 시대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정치·행정 중심인 한성부 도심 5부(의정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와 도성의 외곽 지역인 성저 10리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19세기 말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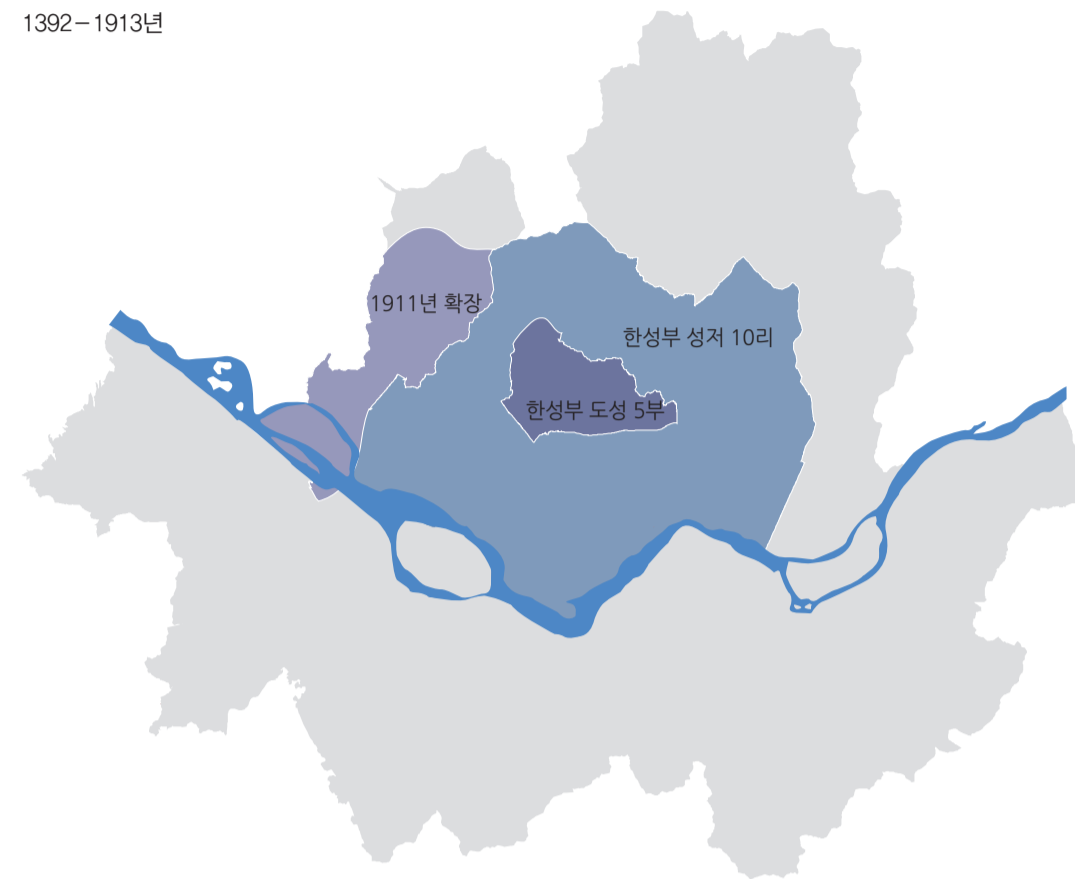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부설되고 전차 노선이 건설되면서 서울의 공간적 범위는 성곽을 넘어 확장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다수의 택지 지구가 건설되었다. 서울의 인구는 광복 직후 90만 명 정도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던 동포의 귀국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7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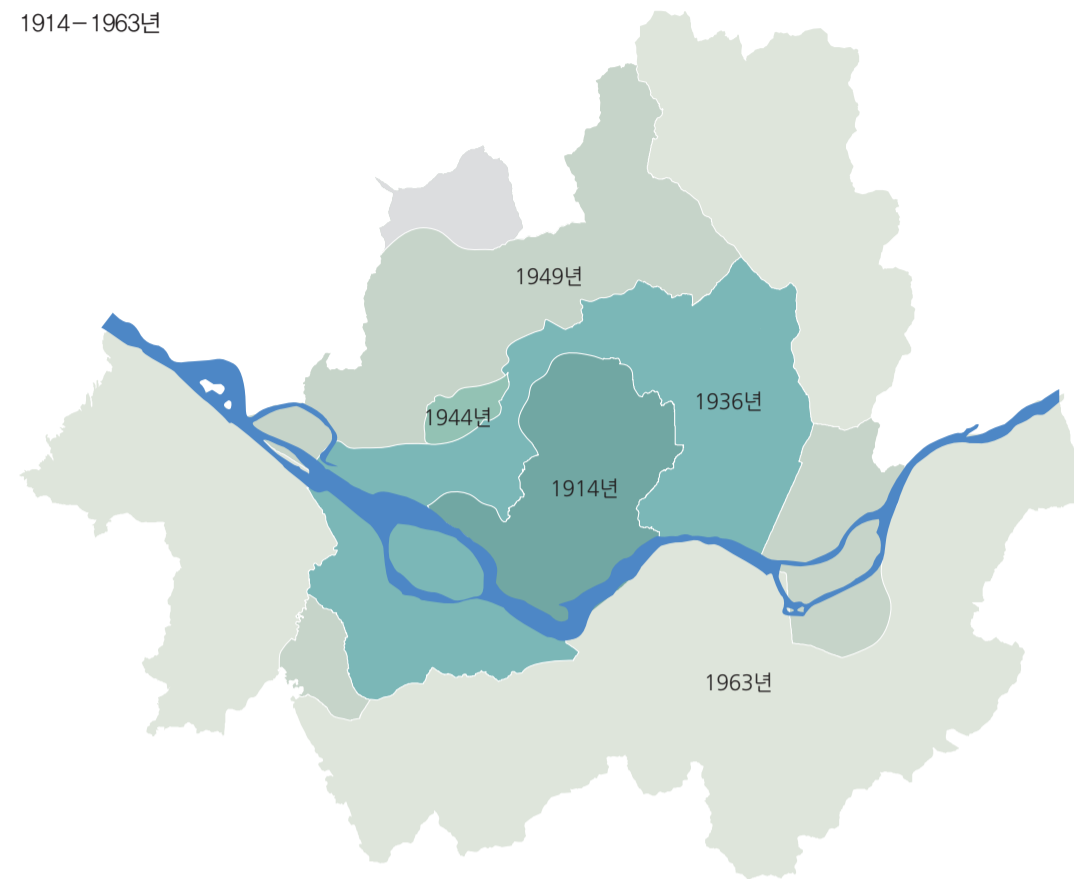
서울과 마찬가지로 6개의 광역시 역시 인구의 면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지방의 거점 도시인 광역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에서 분리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서울특별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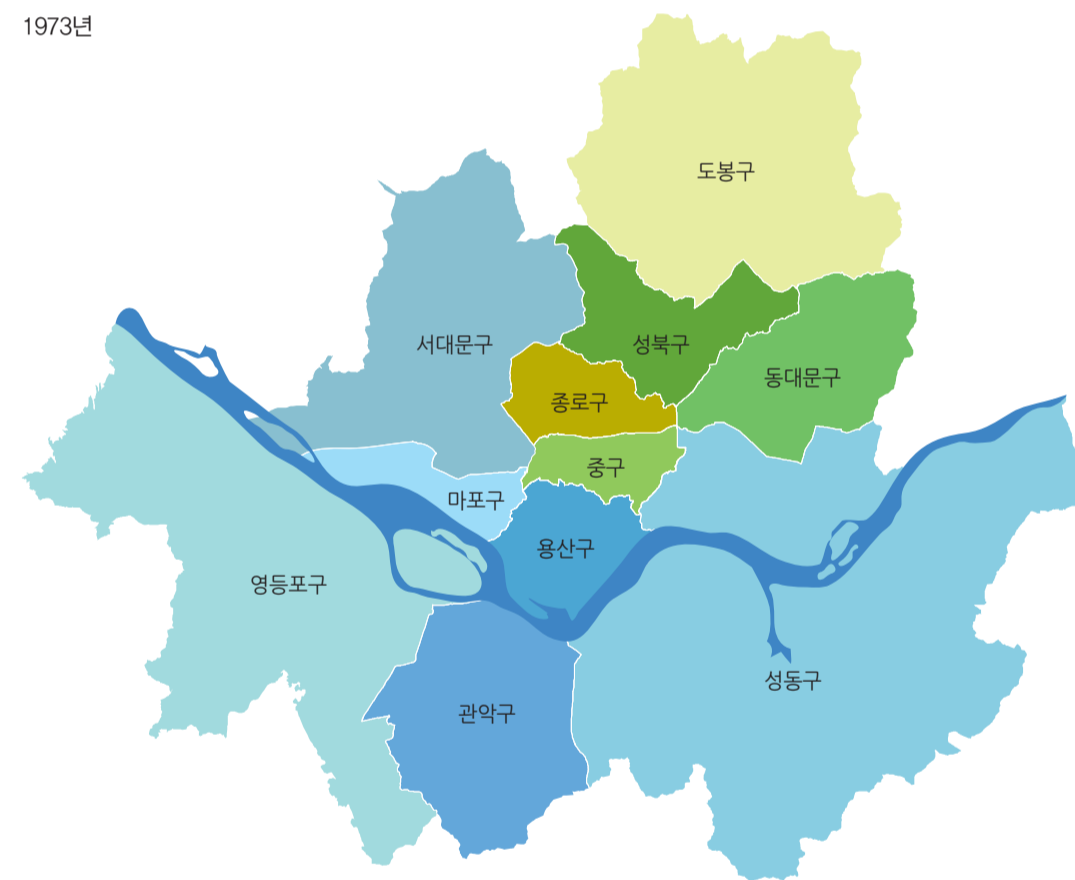
1392-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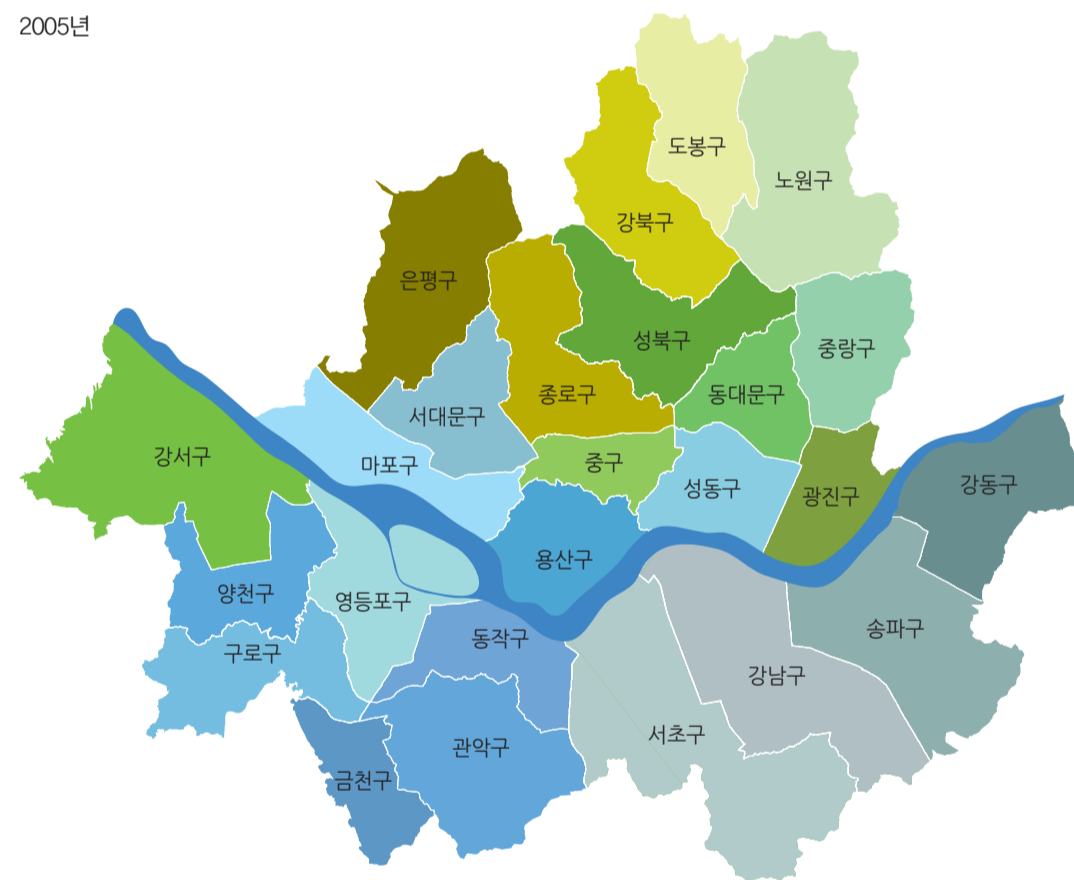
1914-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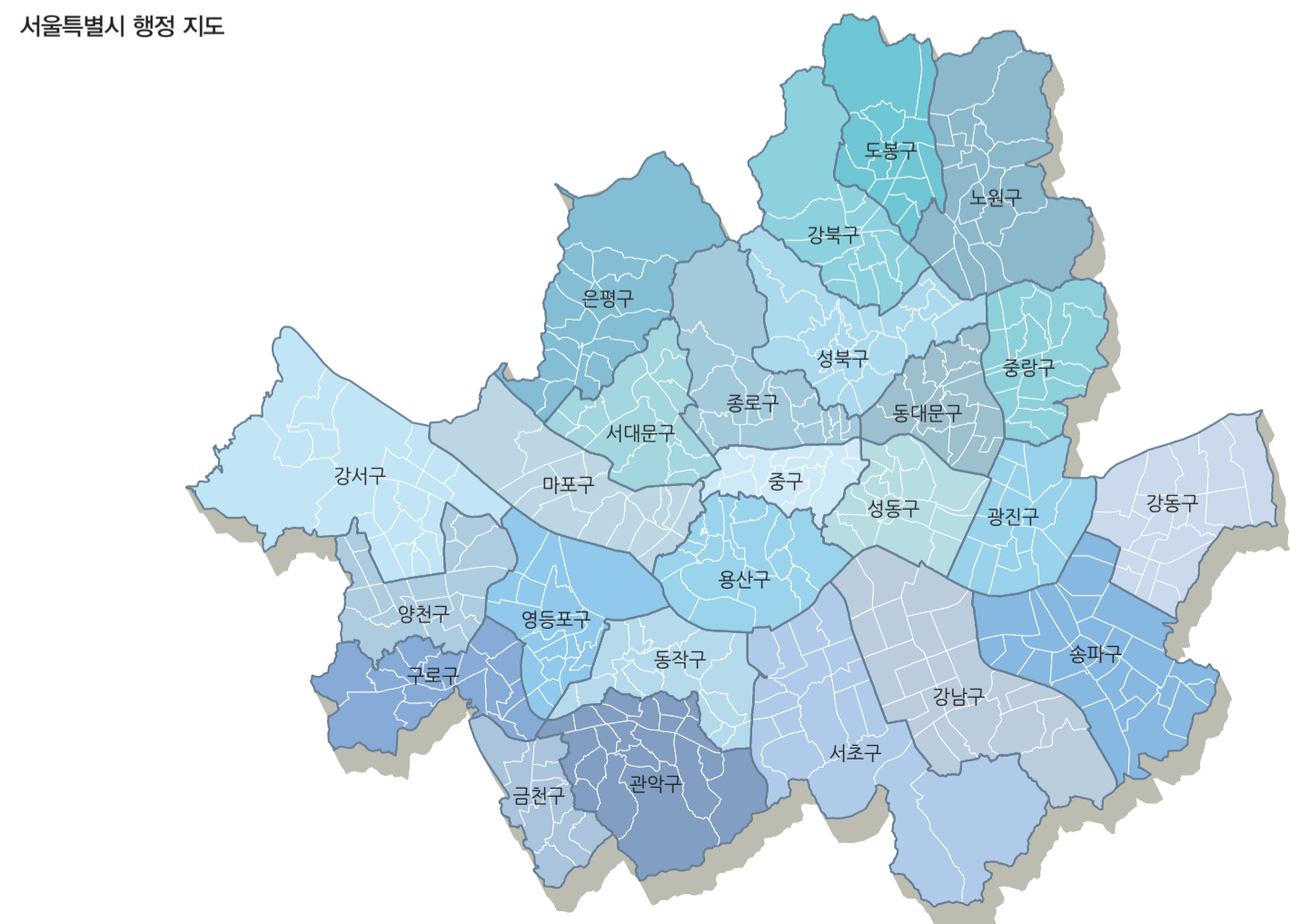
1973년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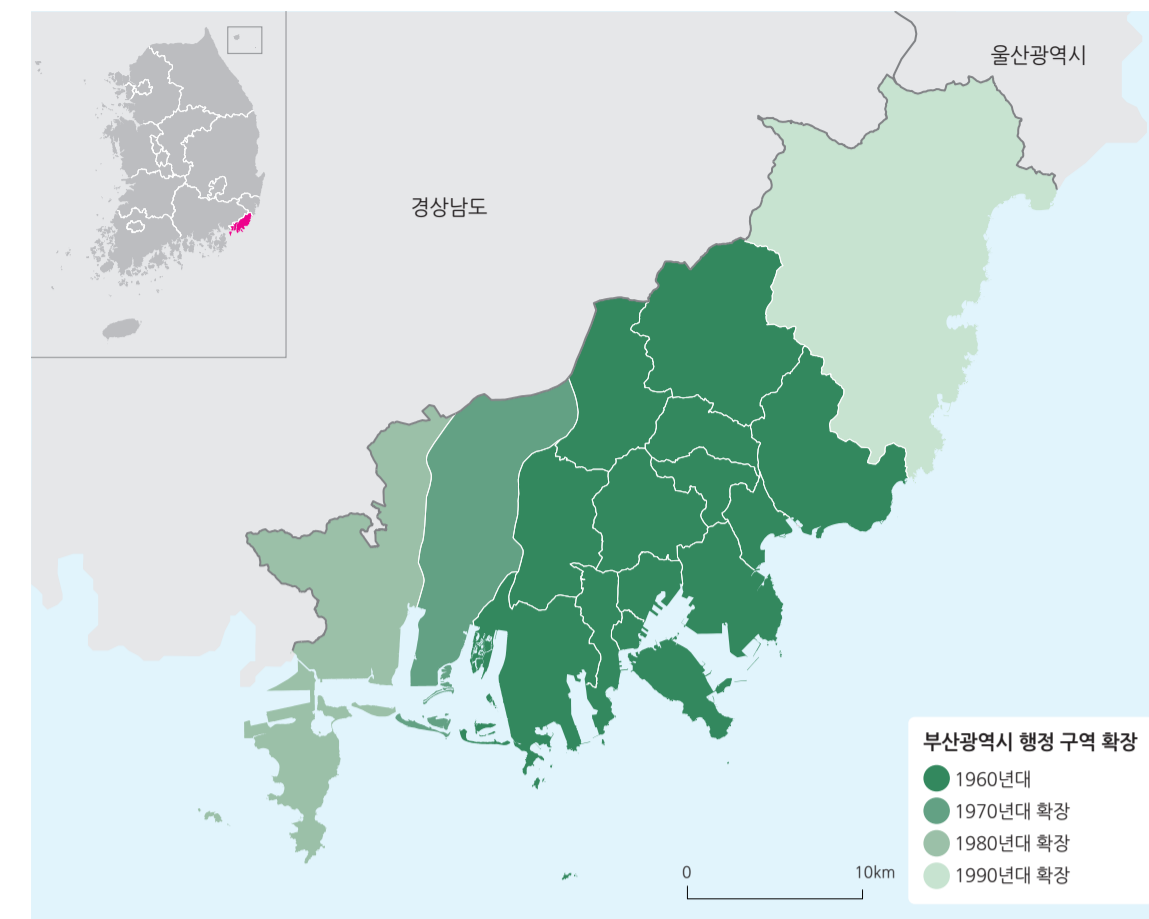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행정 지도



서울시 도시 계획 구역은 1936년에 경성부 도시 계획 구역이 최초로 결정 고시된 이후,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 계획 구역 확장 및 주변 도시들의 행정 구역 독립 등으로 여덟 번의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다. 1943년에 7개의 구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도시 외곽의 개발과 함께 지하철의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시는 외연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1936년 서울시의 면적은 135km²였으나 1950년 송인, 은평, 구로, 독도 등 4개 지구의 편입으로 도시 계획 구역은 269km²로 2배 확장되었다. 1963년에는 도시 계획 구역이 행정 구역의 전역으로 확장되고, 경기도 신도면, 과천면, 오정면, 서면, 철산리, 하안리, 광명리가 서울의 도시 계획 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면서 면적이 713km²로 확장되었다. 그후 계획 인구가 조정되고, 경기도 양주군 화정리, 구리군 갈매리 등 인접 지역이 도시 계획 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등 1970년에는 720km²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1982년에 광명시가 분리되고, 1991년에는 과천시와 부천시도 서울시 도시 계획 구역에서 분리되면서 1995년 이후에는 서울시 면적이 605km²로 조정되어 현재는 전 국토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울시의 행정 구역은 25개 자치구와 42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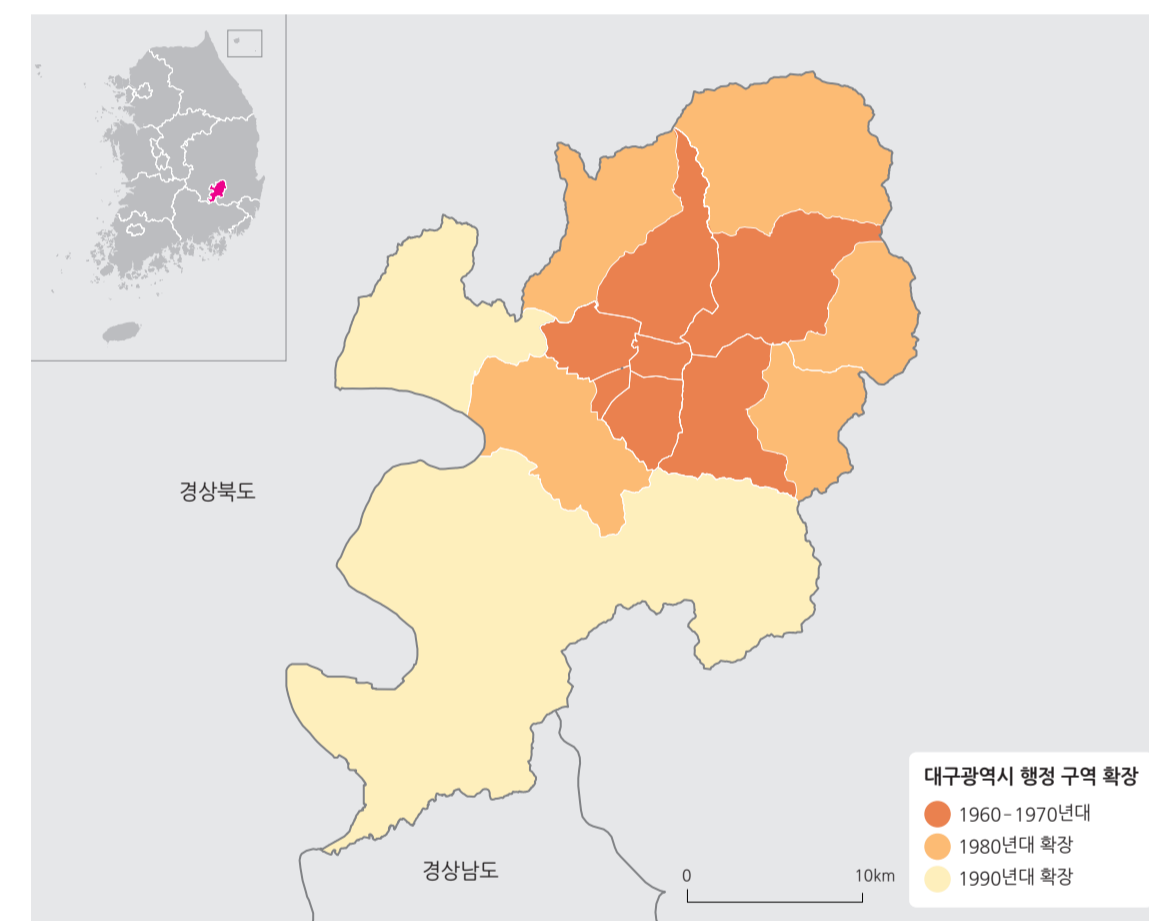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행정 지도



부산광역시는 개항 이후 국제항으로서 발전해 왔으며, 지속적인 항만과 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었다. 1960년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부산은 1963년 부산직할시로 승격되었고 인구의 증가와 함께 낙동강 삼각주 지역이 도시화되었으며, 인근 김해군, 창원군 등을 편입하여 면적이 확장되었다. 1995년 부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양산군 지역을 편입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15개의 구와 1개의 군이 속해 있으며, 그 아래로 205개의 동, 166개의 리, 3개의 읍,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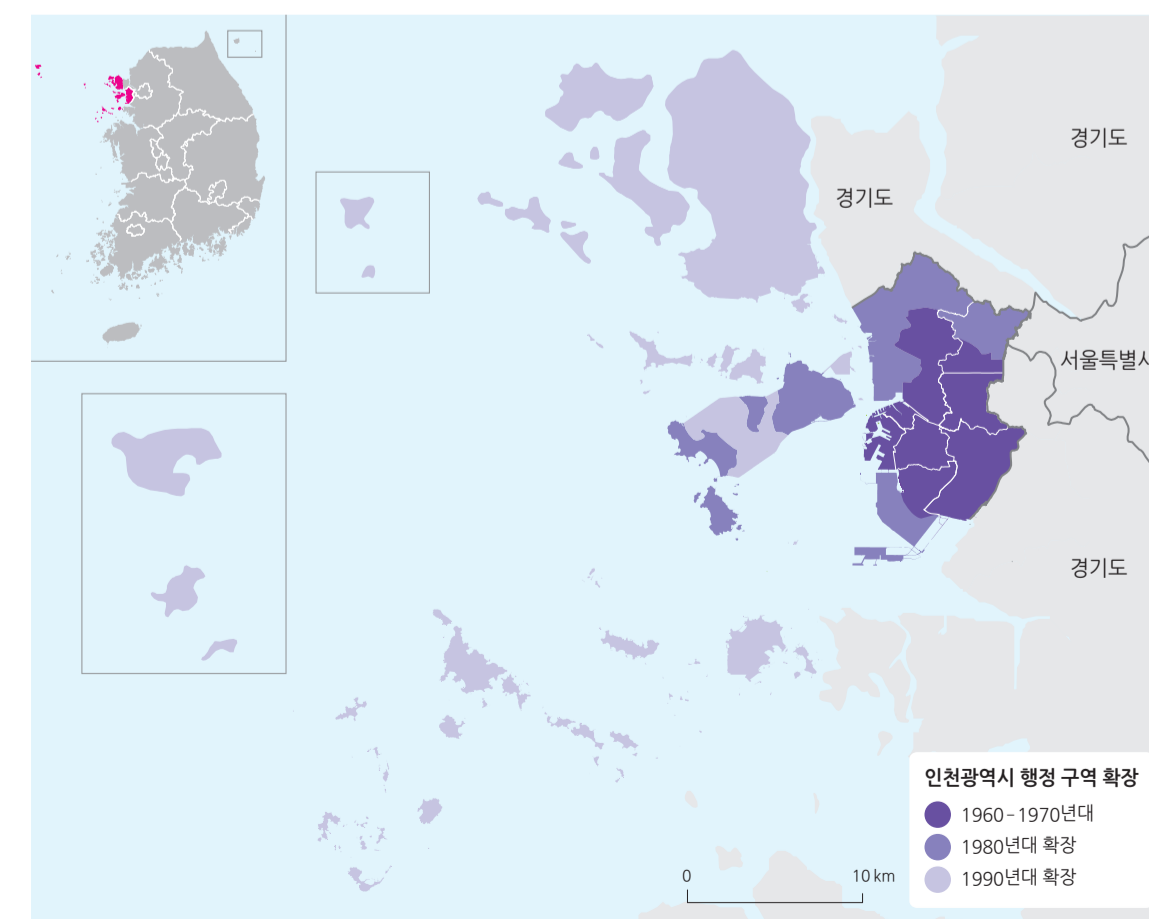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행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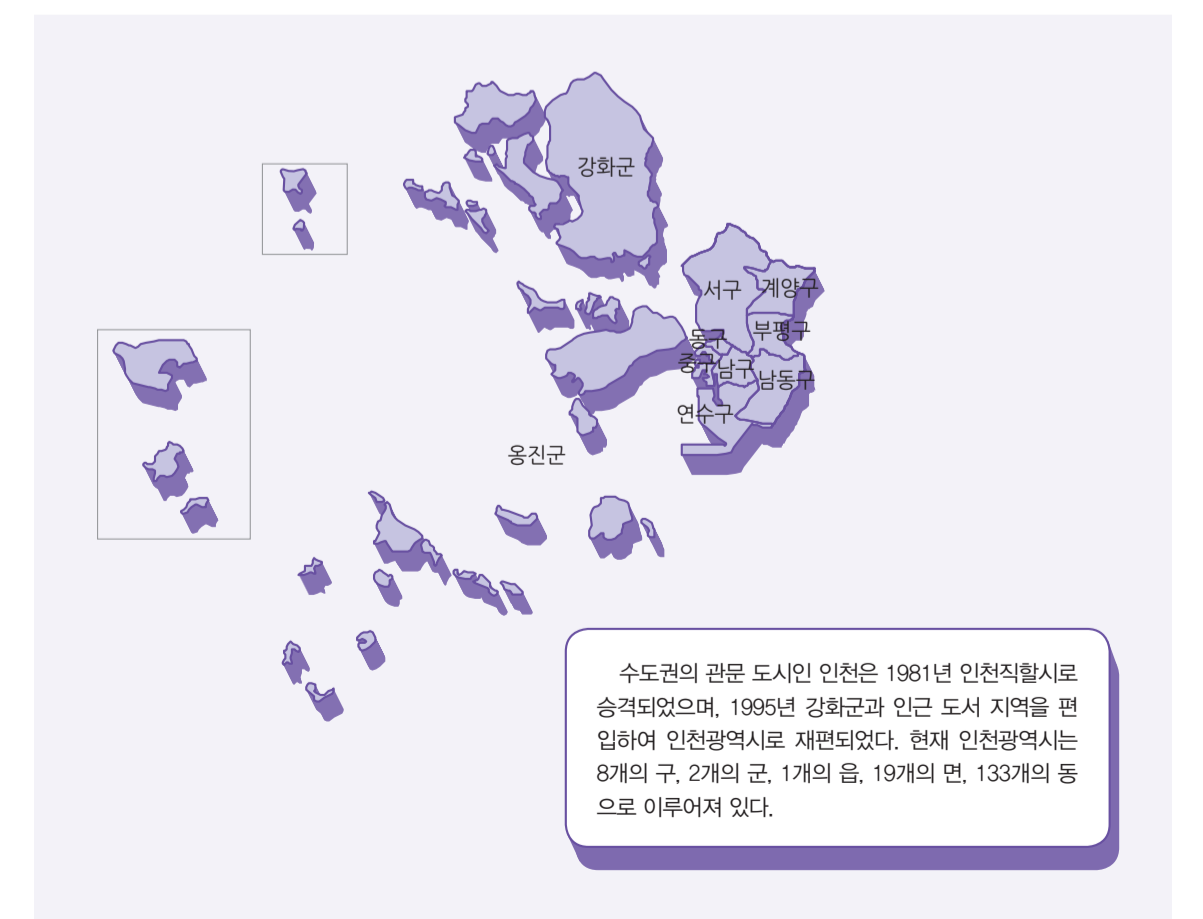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는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과 함께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였으며, 1995년 대구광역시의 출범 이후 달성군을 편입하여 시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7개의 구, 1개의 군, 3개의 읍, 6개의 면, 130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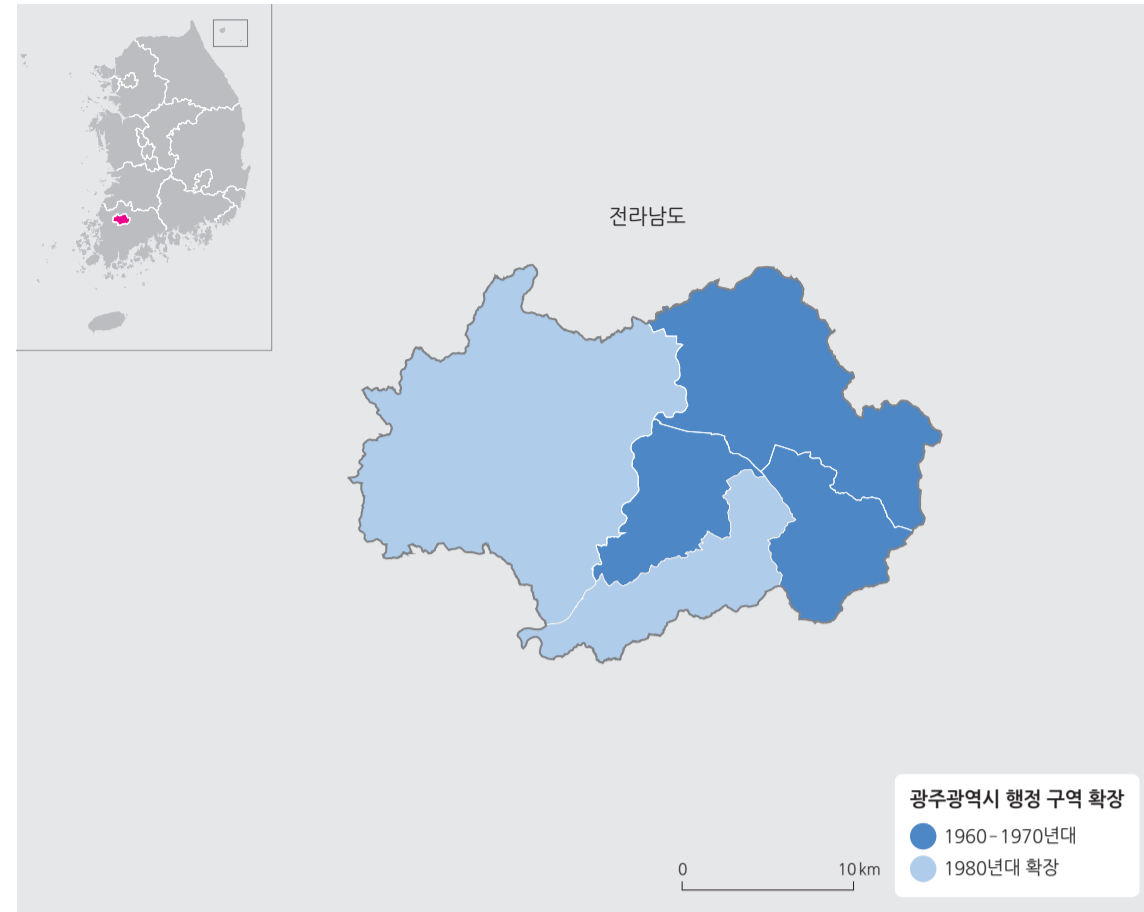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행정 지도



수도권의 관문 도시인 인천은 1981년 인천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강화군과 인근 도서 지역을 편입하여 인천광역시로 재편되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8개의 구, 2개의 군, 1개의 읍, 19개의 면, 13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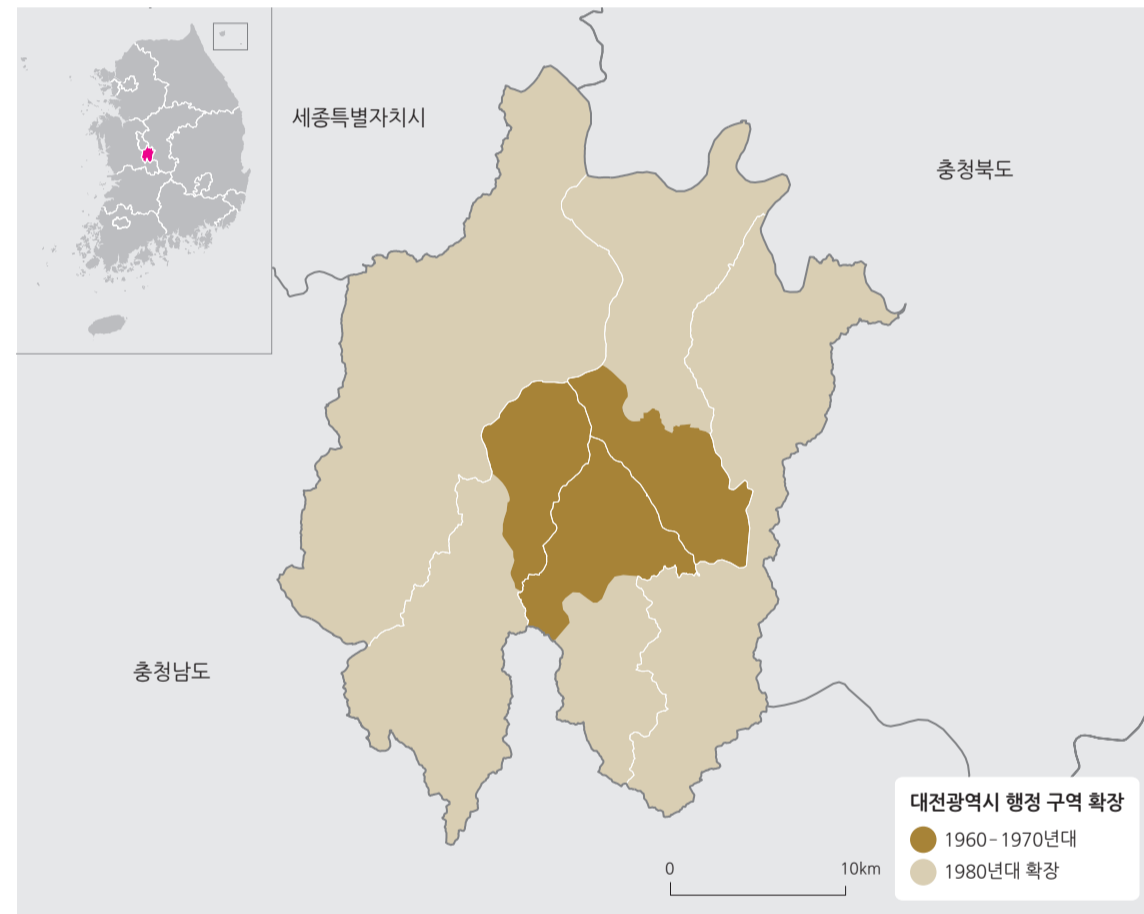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확장



광주광역시 행정 지도



대전광역시의 확장



대전광역시 행정 지도



울산광역시의 확장



울산광역시 행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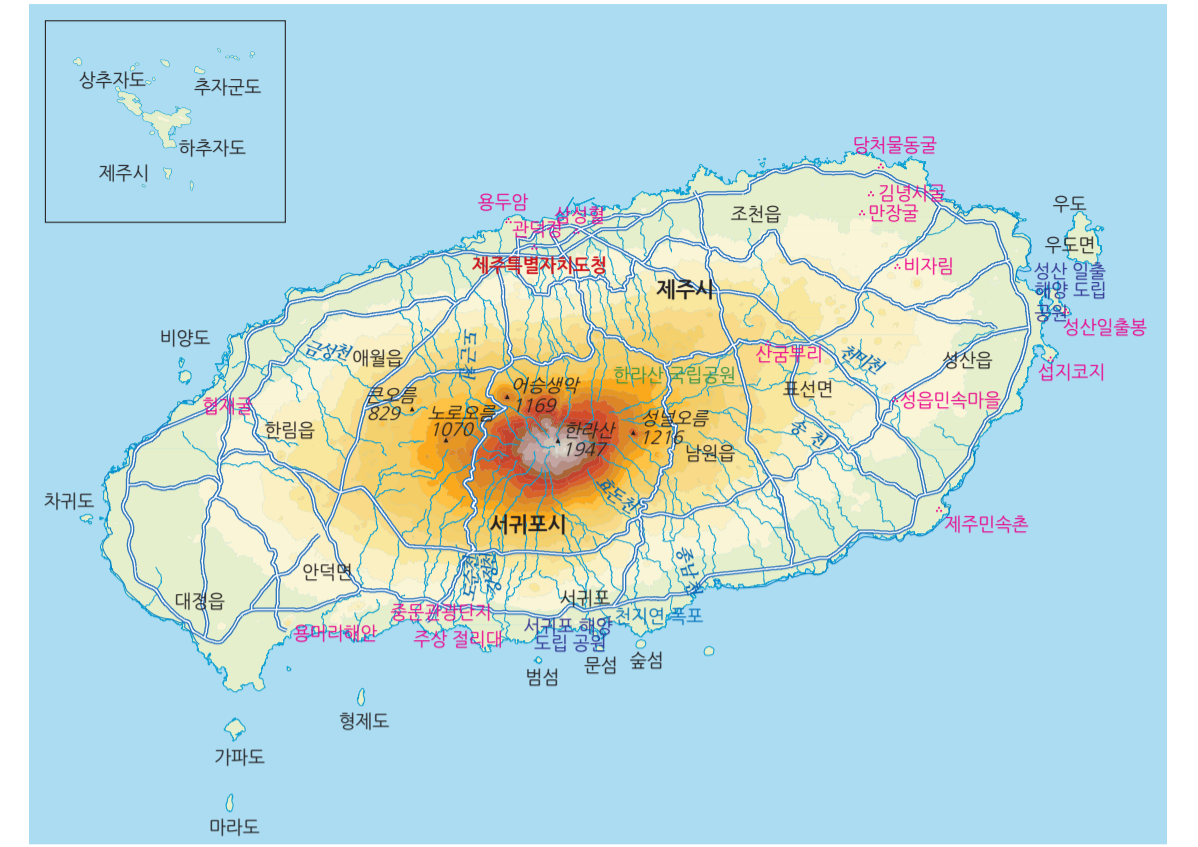
특별 행정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도는 섬 중심부의 한라산과 함께 수많은 오름과 용암 동굴이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인증되어 제주는 전 세계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자연 유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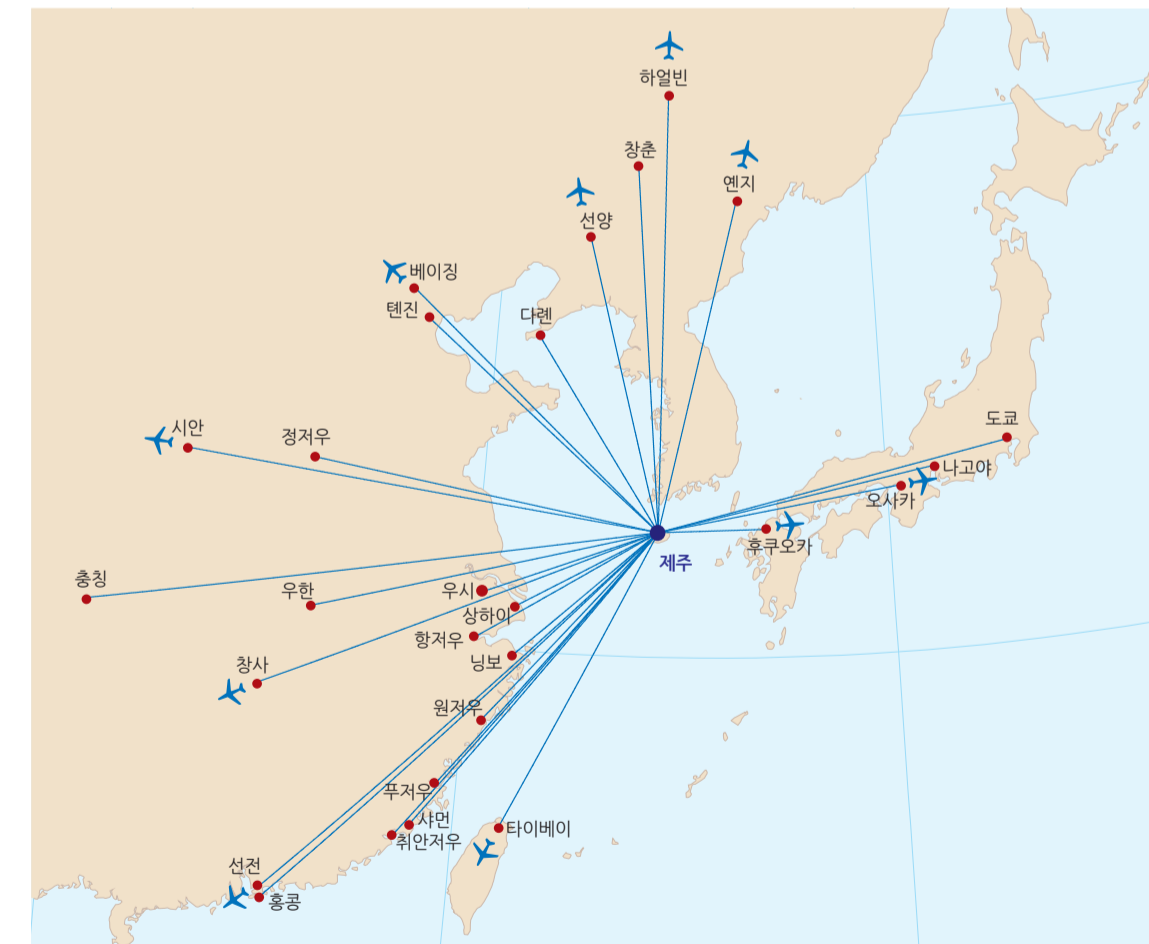
제주도는 독특한 생태계와 잘 보존된 자연 및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레저 및 휴양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고 있어, 서울(김포)-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 승객이 많은 항공 노선에 속한다. 제주도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로의 개편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함께 국제 자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특별자치도는 광역시나 도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 입법, 재정 등의 영역에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행정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과감한 도입으로 외국인 관광객, 투자자, 이민자를 유치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0일 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이 간소화되어 다수의 외국 교육 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통합되었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로 통합되었다.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1% 내외의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69,77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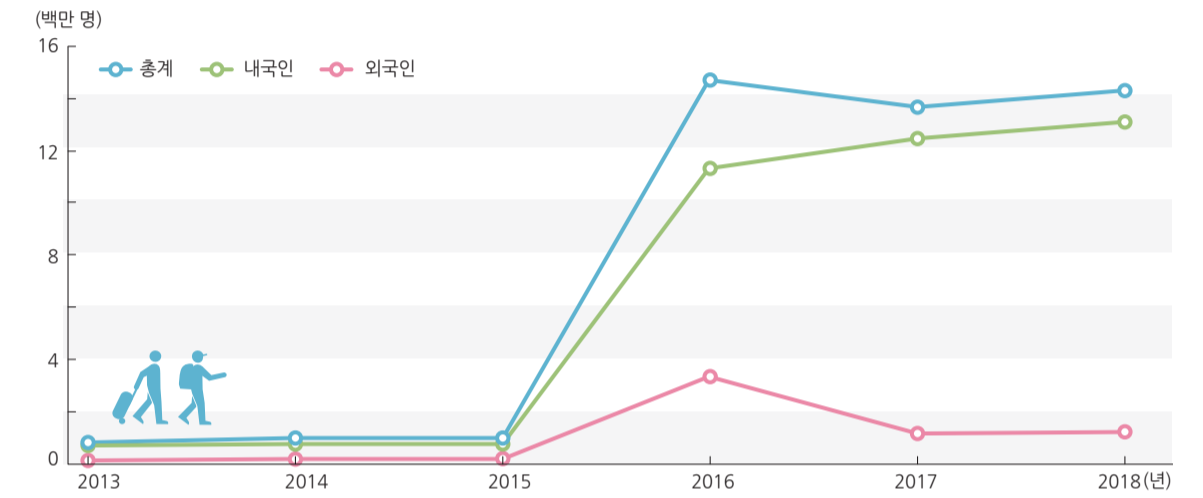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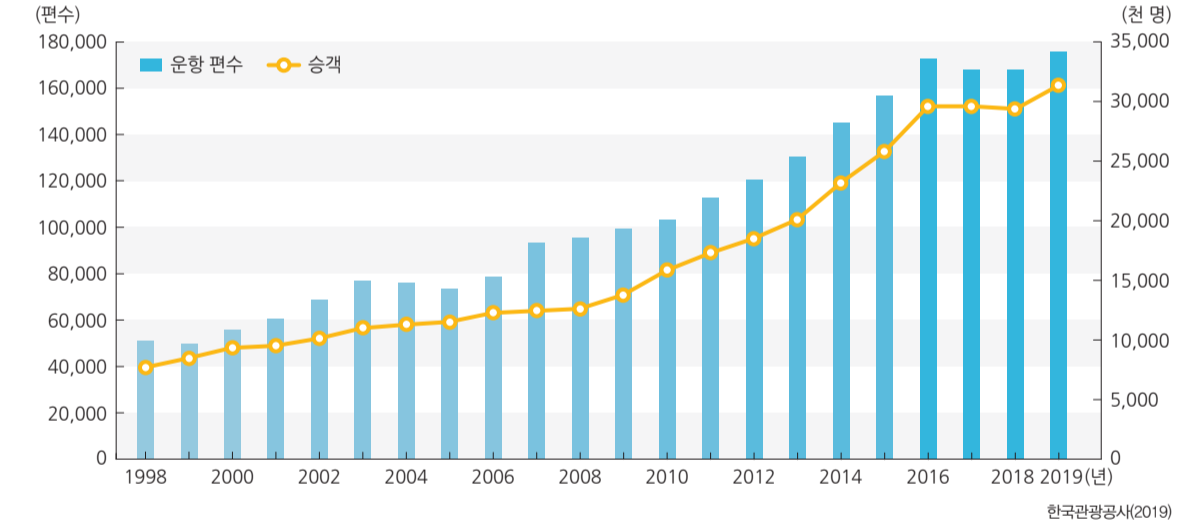
제주 국제 항공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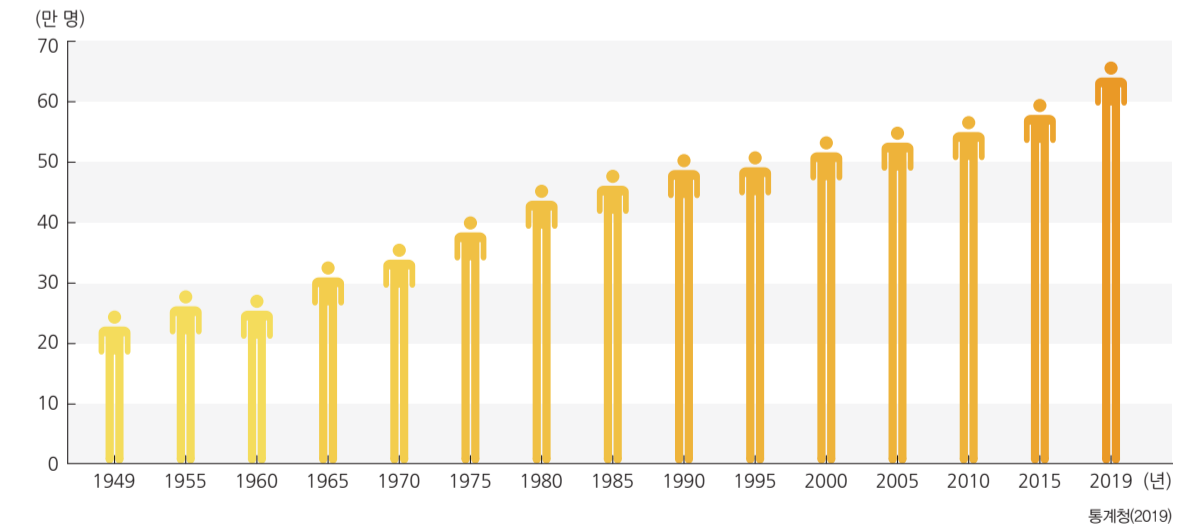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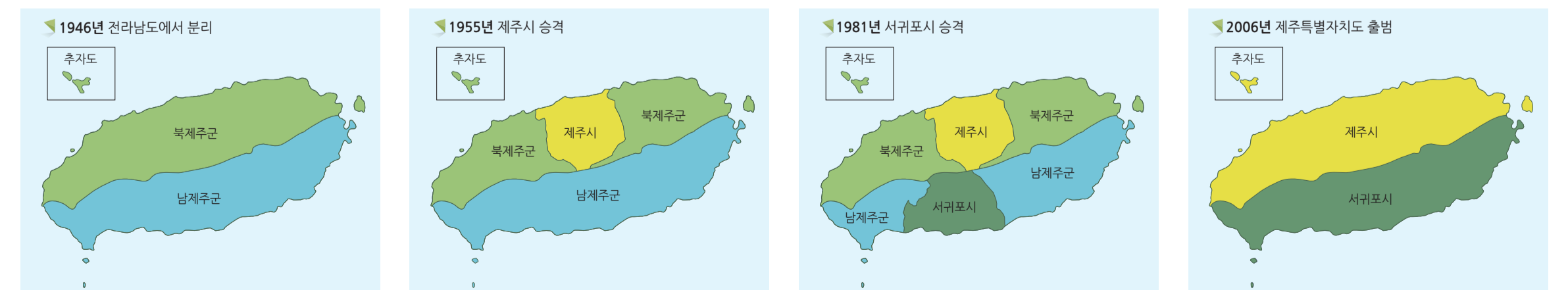
제주 국제공항 이용 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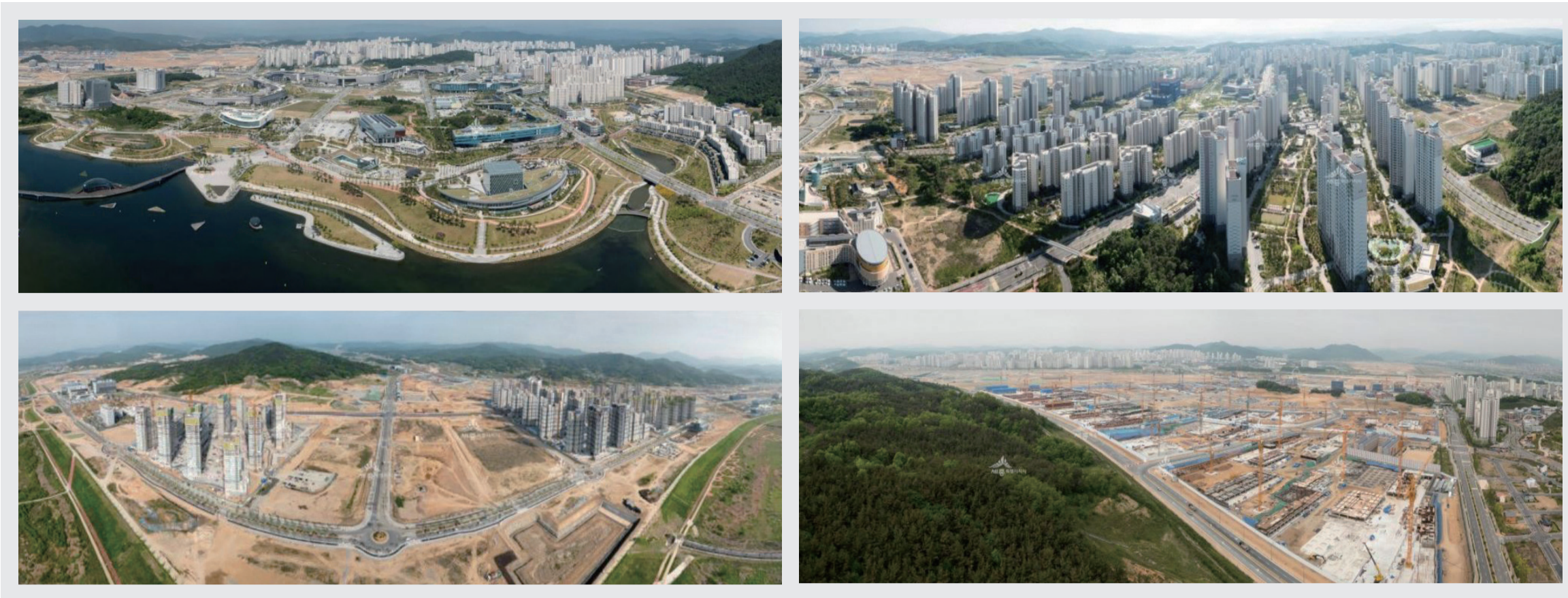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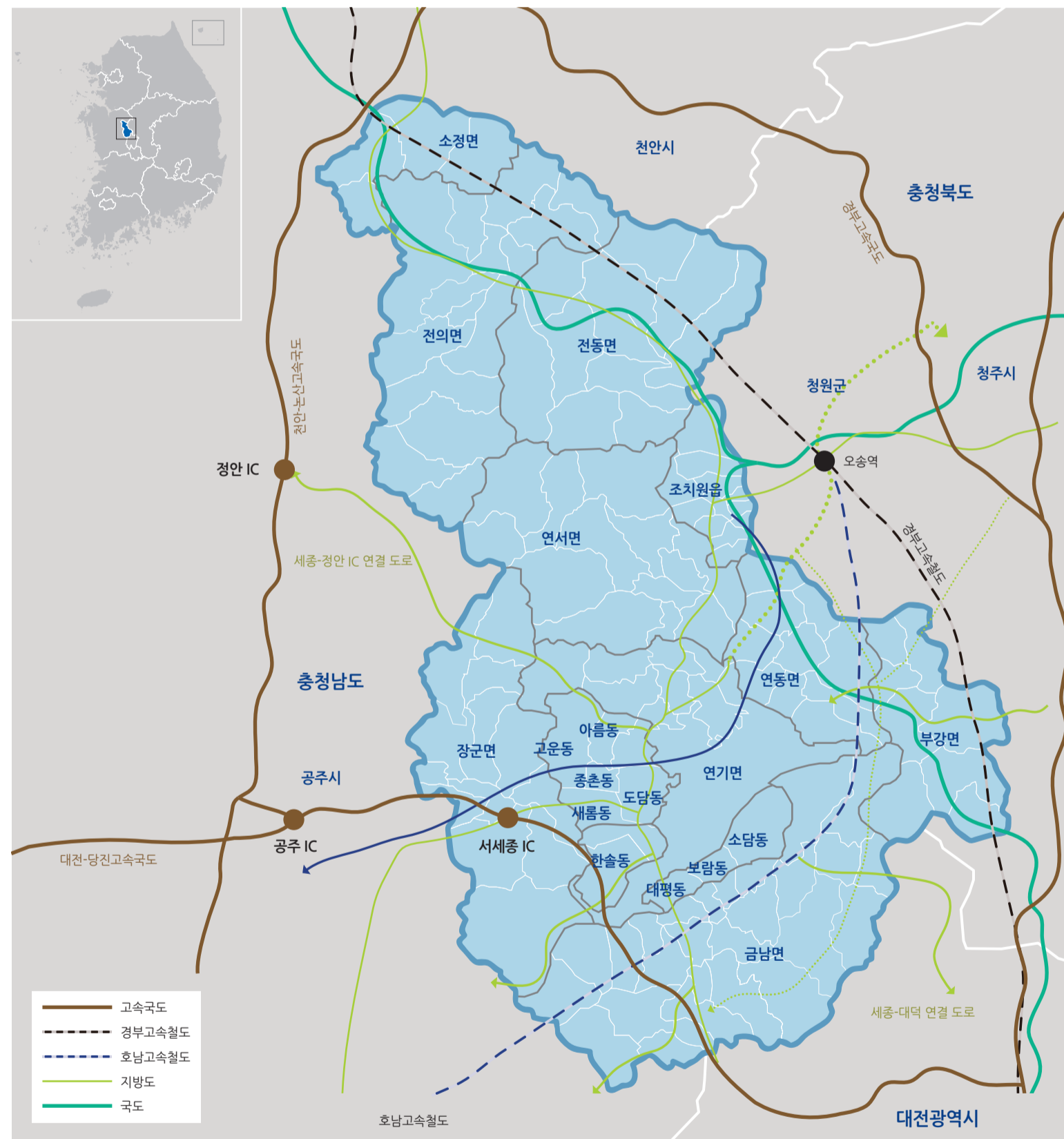


특별 행정 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항공 사진(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상세도



정부 세종 청사 옥상 정원



세종 호수 공원



대통령 기폭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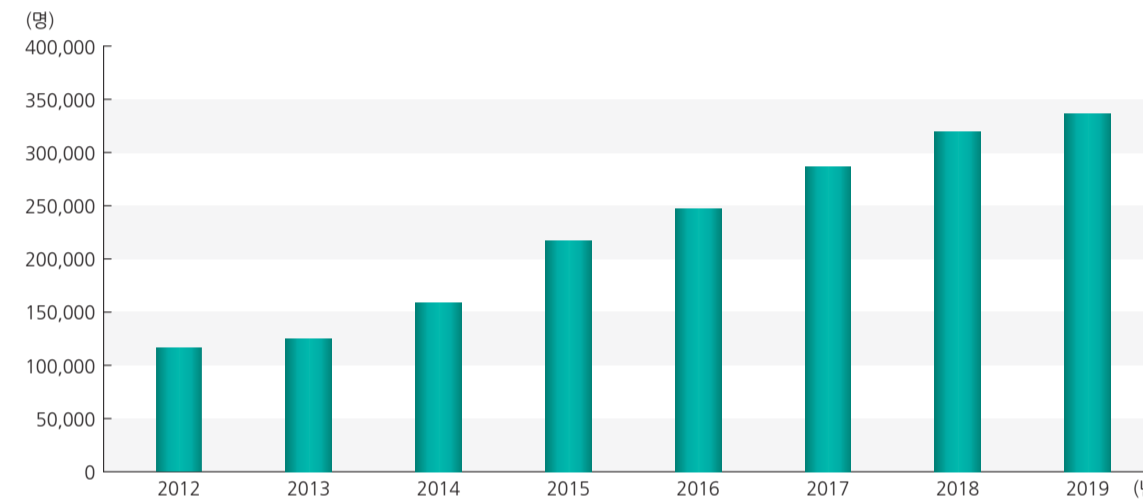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위성 영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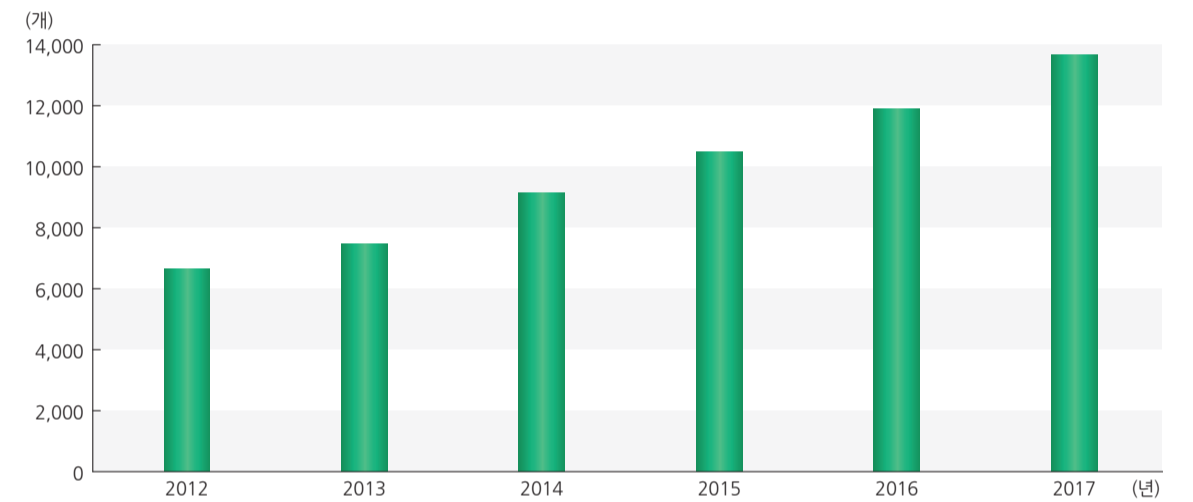


정부 세종 청사 전경(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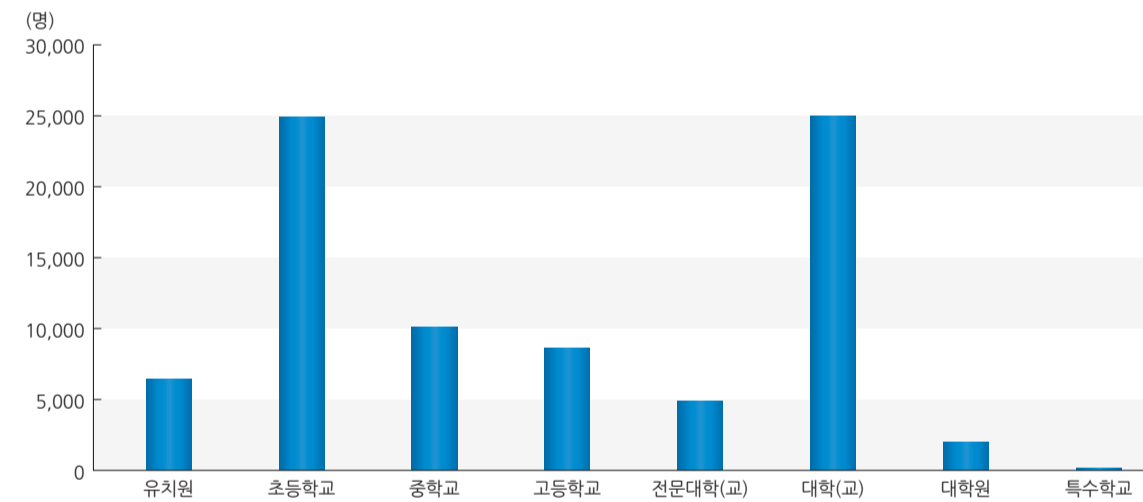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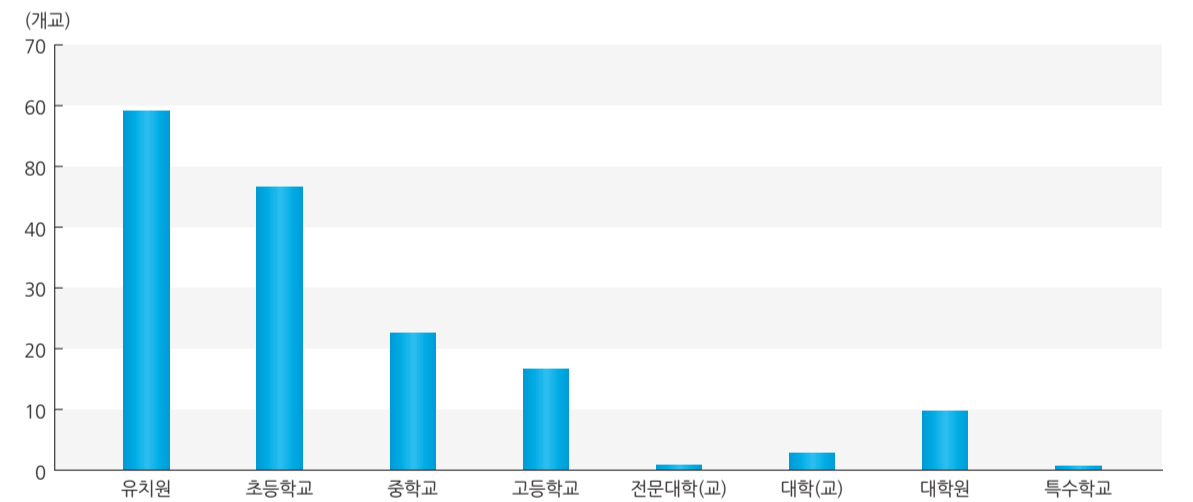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업체 수



세종특별자치시의 학생 수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



중앙 행정 기관 및 소속 기관 이전

| 구분 | 중앙 행정 기관 | 소속 기관 |
|----------------|----------|------------------------------------|
| 1단계 (2012년 이전) | 국무총리실 | 조세심판원 |
| |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국토교통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 환경부 | 중앙환경정책조정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 | |

| 구분 | 중앙 행정 기관 | 소속 기관 |
|----------------|----------|---|
| 2단계 (2013년 이전) | 교육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문화홍보원 |
| | 산업통상자원부 | |
| 3단계 (2016년 이전) | 보건복지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
| |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 |

| 구분 | 중앙 행정 기관 | 소속 기관 |
|----------------|-----------|--------------------------|
| 3단계 (2014년 이전) | 법제처 | |
| | 국세청 | 우정사업본부, 한국정병방출원(문화체육관광부) |
| 4단계 (2016년 이전)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소 |
| 5단계 (2019년 이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성공의 요인 중 하나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했던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이었다. 국토 종합 개발 계획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국가 계획 속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서울 및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집중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수도의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의 과도한 집중과 함께 수도 서울이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인근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연기-공주 지역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수도를 이전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행정부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며, 국민 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5년 정부는 '신행정 수도' 대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여 행정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2006년에는 새로운 도시의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하였다. 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등으로는

충북 청주시와 서로는 충남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경계를 이룬다. 현재는 1개 읍, 9개 면, 14개 동으로 되어 있다.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과 정부 청사 건설 사업이 시작된 이후, 행정 기관 이전 및 생활 기반 시설의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출범 당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행정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현재 중앙 행정 기관 18개, 소속 기관 20개 등 총 38개 기관이 이전되었다. 행정 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9년 7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335,826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330,298명, 외국인은 5,528명이다. 2030년까지 인구는 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